

I. 서론

‘실업’이란 노동력을 팔고 사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실업문제의 해결은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가 발생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실업은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청소년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특수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사회발전에 따른 교육의 연장과 노동의 유예가 낳은 근대 역사의 산물이다. 이러한 유래는 청소년기가 본질적으로 교육과 노동의 단절과 통합을 모두 배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실업정책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과 고용’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따라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중요한 연구의 초점이 될 수 밖에 없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도 그 사회적 의미는 점점 커질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적 침체로 인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아,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 노동시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노동시장이 전체 노동시장과 다른 특성을 밝히는 한편, 청소년내부의 학력과 성에 따른 다양한 하위집단들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차별적인 위치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학력과 성에 따른 청소년 내부의 다양한 청소년하위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II. 노동시장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노동시장이란 경제적인 의미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서로를 소화해 주는 시장이며, 제도적인 의미에서는 노동력을 일자리에 분배하는 규칙의 사회적인 체계이다. 여기서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에는 이중적인 형질상의 특수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는 노동력이란 자체가 그것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인간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자연적 특수성),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상품들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이 노동력은 그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라는 점이다(사회적 특수성). (이각범, 1989: 9)

노동시장론은 형성되어있는 노동시장이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고, 구명(究明)된 노동시장구조를 바탕으로 노동시장행위주체들의 행태, 실업의 발생과 제거, 임금격차의 원인과 변화, 노동이동 등에 관한 제문제들을 연구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효수, 1984: 37)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을 보는 기본적 시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일노동시장론, 이중노동시장론, 노동시장분절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단일노동시장론

가. 신고전파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은 인간이 시장상황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합리적 경제행위의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출발한다. 따라서 상품시장에서 생산품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의 균형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되듯이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심윤종, 1998: 213) 따

라서 신고전과 경제학의 단일노동시장론은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의 메카니즘을 기본모델로 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임금격차는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하나의 국민경제내에 노동력을 전부 포괄하는 단일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한 사회내에 실제로 나뉘어지고 차별적인 여러 부분시장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의 상황은 위의 가정에 입각한 명제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함이 인식되면서 신고전과의 노동시장론은 여러 이론적·경험적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이후에 기본적인 가정들의 수정을 통해 보완되어 나온 이론이 인적자본론이다. (심윤종, 1998: 213)

나.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인적자본론은 신고전과 경제학의 노동시장론이 공급되는 노동력의 질을 균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상황에서 나타나는 임금격차와 실업문제 등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이론은 공급되는 노동력이 동질적이라는 가정을 포기하는 한편, 생산성은 투자의 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수익이 동시에 수반된다고 보는 인적자본론은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여 노동시장에 적합한 노동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투자결정을 하는 경제인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출발한다. 따라서 인적자본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요인으로 평가되며 실제 노동력은 학력과 기능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이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심윤종, 1998: 214)

베커(Becker)는 학력, 지능, 기술습득 등의 개인적 차이가 사회경제적으로 상이한 보상을 초래하는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미

국에서 인적자본의 향상을 위한 합리적 투자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구현되어 교육기회의 확대와 기능습득 훈련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불평등이 실제적으로 완화되지는 못하였다는 회의가 대두되었다. (심윤중, 1998: 21)

인적자본론은 여전히 단일노동시장을 가정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실업문제에 대해 속인적(屬人的)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신고전파경제학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 제도학과 경제학의 이중노동시장론 (dual labor market thoery)

신고전과 노동시장론이 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균형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이중노동시장론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노동시장에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것이라고 본다. (심윤중, 1998: 217)

이중노동시장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은 이중적, 즉 비교적 안정적인 취업관계를 갖고 보다 나은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으로 특징지워지는 1차부문(primary sector)과, 불안정한 취업관계, 보다 불리한 노동조건, 낮은 임금수준 등을 포함하는 2차부문(secondary sector)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1차부문은 독점적인 핵심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여기에 속하고 규격품을 대량생산하며 경기변동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2차부문은 핵심적인 1차부문을 에워싸고 있으며 경기변동의 경우,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 부문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주로 맡고 있다. 이 2차부문은 독점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집단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일명 경쟁부문이라고도 불리운다. (이각범, 1989: 13)

2차노동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 때문에 여기에 속한 노동력은 높은 이동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 1차부문으로의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식으로 힘들고 드문 일이다. (이각범, 1989: 14)

되린저와 피오르(Deoringer and Piore)는 1차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할당규칙 및 방식에 주목하여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 개념은 대기업체 노동력이 승진에 있어서 외부노동시장의 노동력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며, 대기업체의 내부노동시장은 오직 입직(entry-job)수준에서만 외부노동시장과 연결되므로 입직수준 이상의 직위들은 특정 직무에의 승진가능성을 규정하고 임금구조를 결정하는 제도적 규칙들에 의해 내부에서 채워진다는 것이다. (심운중, 1998: 217)

되린저와 피오르는 미국의 제조업체를 실증분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시장의 형성요인이 기업의 특수기능(skill specificity),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관습(custom)이라는 것을 밝혀 내었다.

생산기술의 고도화, 치열한 경쟁, 채용·선발을 위한 직접 및 간접비용의 증가 등은 필연적으로 특정기업에만 필요한 기업특수적인 기능을 생성시킨다. 그런데 기업특수기능에 대한 훈련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훈련비용은 준고정비용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기업특수기능을 가진 노동자의 이직은 고용주에게 그만큼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한편 노동자도 자신이 가진 기술이 특정기업에서만 유용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고용주는 물론 노동자도 지속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장훈련(OJT)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훈련비용으로 하위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상위직무의 기능이나 기술을 보다 쉽게 체득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특수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면서 내부노

동시장의 형성을 강화시킨다.

기업내에서의 관습은 과거의 관례나 전례에 크게 의존하는 일종의 불문율이다. 이들 규칙은 채용, 훈련, 임금지불에 이르는 모든 노사관계를 지배한다. 노동관습은 내부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의 부산물로서 역으로 내부노동시장을 한층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되런저와 피오르는 신고전파의 기업의 이윤극대화원리, 즉 비용극소화원리에 입각하여 내부노동시장이 형성·유지되기 위한 충분조건을 들고 있다. 그것은 내부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자의 긍정적 평가, 노동이동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고용주의 인식, 채용, 선발, 훈련측면에서 내부노동시장의 기술적 효율이 높을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닌 내부노동시장은 노동력의 가격(임금) 결정, 노동력의 배치, 훈련 등에 있어서 외부노동시장과 달리 관리규칙과 관리과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효수, 1984: 67-68)

3. 급진주의의 노동시장 분절론 (labor market segment theory)

일부 이중노동시장론자들 및 네오맑시즘학자들이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가면서 1차노동시장 부문내의 직업들 간에도 1차부문과 2차부문간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최소한 1차부문내의 상층부와 하층부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아 노동시장이 상층 1차부문, 하층 1차부문 및 2차부문의 세 분절(segments)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었다. (심윤중, 1998: 220) 따라서 노동시장을 계급적 사회관계가 만나고 형성되는 장이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이 세 분절을 각각 중간계급(middle class), 노동계급(working class), 하층계급(lower

class)의 부분문화가 갖는 사회학적 특징과 연관시키는 시도를 행하였다. (심윤중, 1998: 220-221)

1차노동시장의 상층부는 전문·관리직으로 구성되어 공식교육이 취업의 주요 요건이 되며, 개인의 창의성·다양성 및 보다 나은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특징을 띠는 뿐만 아니라, 중간계급 구성원들로 충당되고, 그들의 부분문화가 갖는 특성과 연결되는 부문이다. 1차노동시장의 하층부는 상층부의 특징인 일련의 공식화된 작업규칙 및 직무수행절차를 결여하고 있으며 하위사무직 및 상대적으로 숙련된 기능직 업무들로 구성되어 노동계급의 부분문화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2차부문노동시장은 하층계급 부분문화에서 나타나는 사회학적인 특성들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 때 1차노동시장의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그들의 직업활동에 ‘일반적 특성들(general traits)’이 중요시되느냐, 아니면 ‘특수한 특성들(specific traits)’이 중요시되느냐에 있다.

일반적 특성이란 주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보편적 행위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차노동시장 상층부에서 경력과 동시에 주로 포괄적 행위양식이 중요시됨을 말한다. 반면에 1차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습득되는 직접적 능력위주의 특수한 특성들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Edwards)는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위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세 개의 분절로 나뉜 것으로 본다. 2차 노동시장의 노동과정에서는 단순통제(simple control)가 두드러지며, 종속적 일차(subordinate primary) 노동시장 - 1차노동시장의 하층부를 의미 - 에서는 주로 기술적 통제(technical control)가 행해지는 반면, 독립1차(independent primary) 노동시장에서는 작업수행규칙, 승진절차 등이 성문화되고 이에 따른 노동통제가 보편적이라 하면서 이를 관료제적 통제(bureaucratic control)라고 명명하였다. (심윤중, 1998: 221)

노동시장분절론은 노동시장분단화의 역사적 배경과 자본가와 노동자

의 계급대립을 특히 강조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하에서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분할지배(divide and rule) 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분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시장분절론자들은 경쟁적 자본주의와 독점자본주의에로의 이행기와 이행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쟁적 자본주의기에는 공장제(the factory system)가 숙련을 해체, 대량의 반숙련노동을 창출하여 노동력의 동질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분단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노동력의 동질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계급의식의 발전으로 자본가들은 위협을 느끼고 노동력을 지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독점자본주의하의 기업들은 노동자계급의식의 발전을 저해하고 생산과정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을 의도적으로 분단화시켜왔다. (이효수, 1984: 73-74)

급진파 노동시장론자들은 자본가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숙련노동력의 반숙련화를 통하여 노동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숙련노동자로부터 탈취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발생한 대량의 반숙련노동력의 통일적 저항을 저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동분할지배정책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동시장이 분단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효수, 1984: 76)

III. 연구방법

1. 공식통계자료의 활용

본 연구에 활용된 공식통계자료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5월까지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위 조사의 목적은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거시경제분석과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방법은 전국 34,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대상 1주간의 경제활동 상태에 관하여 ILO 권고안에 따른 노동력 접근방법으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통계청, 1997: 6)

가. 경제활동인구

(1)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2) 실업자

-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

- 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
-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하였으나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대상 주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자

나.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자, 즉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 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구직단념자 등을 말한다.

2. 설문조사

가. 사전검사(pretest)

질문지 초안을 구성한 뒤, 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30일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답십리에 있는 중소 의류제조업체인 S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언어구사나 배열순서, 형식,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본조사에 이용될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나. 본조사

본조사는 서울생활권의 근로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만15세-24세 근로청소년 209명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서울생활권의 근로임대아파트는 모두 4지역에 있으며, 지역별 정원과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주소	정원	표본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020명	50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804명	50명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71명	50명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1,850명	59명
계	4,645명	209명

표본추출은 지역별 할당표집법을 이용였으며, 총 209부 중 완성도가 떨어지는 26부를 제외하고 183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다. 통계적 방법

모든 설문문항에 대하여 학력과 직업별로 교차표분석(crosstab)을 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면접조사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목 근로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근로청소년 3명과 중소 외류제조업체인 S사에 근무하는 2명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종학교 졸업후, 구직활동(job search)과 직장이동(job mobility)에 관해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장소	일시	인원
면목 근로임대아파트	8월 6일	3
S사	8월 12일	2

IV. 청소년 노동시장의 성격과 변화

1. 고용구조의 성격과 변화

청소년 고용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7년 7월부터 1998년 5월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통계처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격 월로 제시하였다.

전체 연령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 및 취업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전체 연령층과 청소년 각각에 대하여 학력별 구분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전체 연령층(아래에서는 ‘전체’로 표기)은 만15세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은 만15세-29세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설명하면,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의 합은 전체 모집단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전체 모집단’로 계산되며,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로 계산된다.

학력별 구분은 현재의 교육상태(졸업/재학/중퇴)를 기준으로 초등-졸업, 초등-재학, 초등-중퇴, 중-졸업, 중-재학, 중-중퇴, 고-졸업, 고-재학, 고-중퇴, 전문대-졸업, 전문대-재학, 전문대-중퇴, 대학이상-졸업, 대학이상-재학, 대학이상-중퇴, 무학으로 1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절대수가 미미하여 비율이 큰 의미가 없는 초등-졸업, 초등-재학, 초등-중퇴, 중-재학, 중-중퇴, 무학의 경우에는 비율(%)의 분포에서 제외하여 10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학력구분이 가졌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금까지는 대체로 학력이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고졸의 경우에 전문대-재학, 전문대-중퇴, 대학-재학, 대학-중퇴가 순수 고졸에 더하여 고졸로 계산이 되었으며, 중졸의 경우에 고-재학, 고-중퇴가 순수 중졸에 더하여 중졸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전문대졸자는 대졸자에 포함이 되었다. 이러한 학력구분은 교육제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청소년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매우 어렵게 한다.

현재의 교육상태를 고려한 학력구분	기존의 학력구분
초등-졸업	초등-졸업이하
초등-재학	초등-졸업이하
초등-중퇴	초등-졸업이하
중-졸업	중-졸업
중-재학	초등-졸업이하
중-중퇴	초등-졸업이하
고등-졸업	고등-졸업
고등-재학	중-졸업
고등-중퇴	중-졸업
전문대-졸업	대학-졸업
전문대-재학	고등-졸업
전문대-중퇴	고등-졸업
대학이상-졸업	대학-졸업
대학이상-재학	고등-졸업
대학이상-중퇴	고등-졸업
무학	초등-졸업이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최종학력 중심의 학력구분방식을 따르지 않고, 현재의 교육상태(졸업/재학/중퇴)를 고려하여 학력구분을 하기로 한다. 참고로 중퇴자에는 해당 학력의 휴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

가. 경제활동참가율

1) 전체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Total	62.9%	62.5%	62.3%	58.9%	60.6%	61.7%
중-졸업	72.5%	72.7%	72.6%	67.4%	70.2%	71.9%
고-졸업	74.0%	73.9%	74.5%	70.7%	71.3%	71.8%
고-재학	1.4%	1.9%	3.2%	4.9%	0.7%	0.8%
고-중퇴	74.8%	75.1%	76.8%	67.1%	69.5%	72.1%
전문대-졸업	81.4%	81.4%	81.8%	78.9%	79.5%	79.1%
전문대-재학	26.2%	17.9%	22.4%	33.6%	14.4%	14.4%
전문대-중퇴	62.2%	65.9%	64.7%	60.7%	62.4%	65.5%
대학이상-졸업	81.6%	81.4%	81.5%	79.8%	78.9%	79.2%
대학이상-재학	25.6%	20.5%	22.7%	27.3%	14.8%	15.7%
대학이상-중퇴	68.6%	69.3%	69.7%	56.3%	62.5%	63.5%

2) 청소년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Total	48.5%	46.8%	47.3%	46.6%	46.4%	46.0%
중-졸업	66.1%	68.8%	68.6%	65.2%	67.0%	69.7%
고-졸업	73.1%	72.5%	73.6%	69.4%	69.5%	69.7%
고-재학	1.3%	1.9%	3.2%	4.9%	0.7%	0.8%
고-중퇴	67.3%	65.4%	69.1%	58.6%	59.8%	62.2%
전문대-졸업	82.3%	82.9%	84.1%	80.5%	80.4%	79.6%
전문대-재학	25.2%	16.7%	21.2%	33.0%	13.7%	13.7%
전문대-중퇴	54.9%	59.4%	56.5%	56.7%	60.4%	64.3%
대학이상-졸업	80.1%	79.9%	79.9%	78.1%	75.4%	76.1%
대학이상-재학	23.0%	17.7%	20.0%	24.3%	12.2%	12.8%
대학이상-중퇴	54.7%	55.8%	56.1%	42.1%	49.9%	52.6%

2-1) 청소년 : 일반계와 실업계의 구분

교육정도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일반-졸업	65.4%	65.2%	66.3%
일반-재학	1.4%	0.2%	0.2%
일반-중퇴	61.6%	57.4%	61.7%
실업-졸업	72.2%	72.6%	72.1%
실업-재학	12.0%	1.6%	1.9%
실업-중퇴	56.8%	61.0%	62.4%

(1) 전체

98년 5월 전체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7%인 가운데, 졸업자중에서는 전문대졸과 대졸이 약 79%이고, 중졸과 고졸이 약 72%이다.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는데 비하여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15%이며, 방학중에 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IMF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 학력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층에서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98년 3월 이후에 개학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이 97년 9월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파트타임직업의 감소로 인한 대학 재학생들의 구직활동의 포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제시된 자료가 겨울을 끼고 있어서 경기에 미치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97년 11월과 98년 1월을 지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점을 보였다가 다시 상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98년 5월 전체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로서 성인보다 약 15%정도 낮다. 졸업자중에서는 전문대졸이 79.6%로서 가장 높고, 대졸이 76.1%, 그리고 중졸과 고졸이 69.7%이다. 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우 낮는데 비하여 전문대 재학생

과 대학 재학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13%내외이며, 방학중에 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연령층의 결과와 비슷하다. 왜냐하면 전체 연령층에서 재학생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연령대에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MF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문대 중퇴자만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다. 그리고 전체 연령층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 연령층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원인은 역시 전체 연령층의 재학생이 대부분 청소년 재학생과 겹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층에 속하는 고졸,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중퇴자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계졸보다 실업계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6% 높다. 그리고 방학중 일반계재학생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미미한데 비해, 실업계재학생은 12%까지 증가하며, 개학과 함께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일반계중퇴생과는 달리 실업계중퇴생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나. 실업률

1) 전체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Total	2.2%	2.2%	2.6%	4.5%	6.5%	6.9%
중-졸업	1.6%	1.4%	1.4%	4.4%	7.0%	7.1%
고-졸업	2.6%	2.6%	3.0%	4.8%	7.5%	7.9%
고-재학	3.7%	2.6%	7.7%	26.3%	1.5%	2.8%
고-중퇴	4.5%	3.8%	6.9%	8.7%	14.1%	12.8%
전문대-졸업	2.9%	3.0%	2.9%	4.5%	9.0%	9.3%
전문대-재학	6.5%	5.6%	16.0%	28.1%	5.4%	11.3%
전문대-중퇴	4.4%	6.9%	8.5%	20.8%	17.4%	19.1%
대학이상-졸업	2.6%	2.5%	2.4%	2.7%	4.9%	5.6%
대학이상-재학	4.2%	3.8%	13.1%	19.7%	4.1%	7.3%
대학이상-중퇴	2.6%	4.4%	5.1%	4.6%	8.0%	7.5%

2) 청소년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Total	4.9%	4.8%	6.1%	9.4%	12.1%	11.6%
중-졸업	5.0%	6.1%	3.6%	12.2%	17.5%	13.5%
고-졸업	4.6%	4.4%	5.4%	7.9%	12.0%	11.5%
고-재학	3.2%	2.2%	7.5%	26.7%	1.6%	2.9%
고-중퇴	10.4%	8.4%	12.3%	13.3%	21.9%	20.6%
전문대-졸업	4.7%	4.9%	4.0%	6.1%	12.6%	12.4%
전문대-재학	6.9%	6.0%	17.2%	29.0%	5.7%	12.0%
전문대-중퇴	4.1%	9.4%	10.1%	19.4%	20.5%	21.8%
대학이상-졸업	5.4%	4.9%	5.3%	6.0%	10.8%	10.1%
대학이상-재학	4.8%	4.5%	15.4%	22.4%	4.6%	7.9%
대학이상-중퇴	3.3%	7.1%	8.9%	9.5%	12.0%	11.2%

2-1) 일반계와 실업계의 구분

교육정도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일반-졸업	8.4%	11.8%	10.0%
일반-재학	25.9%	0.0%	0.0%
일반-중퇴	12.2%	24.4%	26.7%
실업-졸업	7.6%	12.1%	12.5%
실업-재학	26.9%	2.0%	3.4%
실업-중퇴	14.1%	20.9%	17.3%

(1)전체

98년 5월 전체 연령층의 실업률은 6.9%인 가운데,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졸이 9.3%로 가장 높고, 고졸이 7.9%, 중졸이 7.1%, 대졸이 5.6%의 순이다. 재학생의 경우 전문대 재학생이 11.3%, 대학 재학생이 7.3%, 고등학교 재학생이 2.8%인 가운데, 모든 학력의 재학생이 겨울방학기간인 98년 1월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개학이후인 98년 3월에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퇴자의 경우 전문대 중퇴자가 19.1%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중퇴자가 12.8%, 대학 중퇴자가 7.5%의 순이다.

IMF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며, 특히 고등학교 중퇴자와 전문대 중퇴자의 실업률의 증가폭이 크다.

(2)청소년

98년 5월 청소년의 실업률은 11.6%로서 성인 실업률의 약 1.7배이다. 졸업자의 경우 중졸의 실업률이 13.5%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12.4%, 고졸이 11.5%, 대졸이 10.1%의 순이다. 재학생의 경우 전문대 재학생이 12.0%, 대학 재학생이 7.9%, 고등학교 재학생이 2.9%인 가운데, 모든 학력의 재학생이 겨울방학기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개학이후에 역시 급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증하는 반면, 실제로 파트타임직업이라든가 갖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며, 개학후에는 경제활동의 포기로인해 실업률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퇴

자의 경우 전문대 중퇴자가 21.8%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중퇴자가 20.6%, 대학 중퇴자가 11.2%이다.

IMF 전후를 비교해보면, 98년 5월에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고등학교 중퇴자와 전문대학 중퇴자의 실업률의 증가폭이 크다.

여름방학기간인 97년 7월의 실업률이 평월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기간인 98년1월에 실업률이 크게 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방학특성의 차이도 있지만, IMF 이후 방학기간에 재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에서 노동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층에 속하는 고졸,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중퇴자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98년 5월에 실업계졸이 일반계졸보다 실업률이 2.5% 높은 반면, 일반계 중퇴자는 실업계 중퇴자보다 9.3% 높다.

겨울방학기간중에 실업계 재학생의 실업률은 26.9%, 일반계 재학생의 실업률은 25.9%이며, 개학 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일반계 재학생의 실업률은 0%이다.

다. 실업자

1) 전체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5월-7월)
Total	476479	468511	573384	934022	1377745	1,491,728	1,015,249
초등-졸업	19181	20435	28917	54276	106879	124,767	105,586
초등-재학	0	0	0	0	0	-	-
초등-중퇴	3561	3966	5040	6481	10304	13,515	9,954
중-졸업	49695	44166	45198	121803	197451	206,450	156,755
중-재학	0	0	0	0	0	-	-
중-중퇴	7694	5633	7221	12583	21787	25,531	17,837
고-졸업	218277	218624	251283	413890	652651	686,065	467,788
고-재학	1266	1216	6098	29957	249	531	- 735
고-중퇴	16403	13687	25629	20498	35631	33,616	17,213
전문대-졸업	41540	43084	40505	52786	116725	120,878	79,338
전문대-재학	8717	4979	17238	36743	3881	8,181	- 536
전문대-중퇴	4943	8168	9852	11548	10164	13,874	8,931
대학이상-졸업	77065	74260	73150	96086	182647	208,505	131,440
대학이상-재학	13278	9971	37713	59960	7649	14,266	988
대학이상-중퇴	10154	17153	20356	11953	23140	22,791	12,637
무학	4705	3169	5182	5457	8589	12,759	8,054

2) 청소년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5월-7월)
Total	270186	256791	329684	482543	616835	590263	320,077
초등-졸업	658	1511	2295	0	2165	1570	912
초등-재학	0	0	0	0	0	0	-
초등-중퇴	0	419	422	832	525	0	-
중-졸업	9076	11073	6421	20308	29992	23447	14,371
중-재학	0	0	0	0	0	0	-
중-중퇴	872	460	459	3484	8443	6449	5,577
고-졸업	137683	127595	157494	217003	331374	311745	174,062
고-재학	1057	1006	5882	29957	249	531	- 526
고-중퇴	11281	8812	13613	10442	18501	18208	6,927
전문대-졸업	34889	35978	28701	38716	92238	89185	54,296
전문대-재학	8716	4979	17238	36743	3881	8181	- 535
전문대-중퇴	2812	6950	7102	8685	9967	13465	10,653
대학이상-졸업	45935	40250	41938	49671	100747	93153	47,218
대학이상-재학	13279	9593	37334	57958	6775	11897	- 1,382
대학이상-중퇴	3927	8167	10785	8743	11973	12433	8,506
무학	0	0	0	0	0	0	-

2-1) 일반계와 실업계의 구분

교육정도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일반-졸업	92970	127370	106555
일반-재학	5310	0	0
일반-중퇴	3592	6463	8326
실업-졸업	124033	204005	205190
실업-재학	24647	249	531
실업-중퇴	6851	12039	9881

(1) 전체

98년 5월의 실업자는 총 1,491,728명이다. 이 중에서 고졸자가 686,065명으로 4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대졸자가 208,505명으로 14%, 중졸자가 206,450명으로 13.8%, 전문대졸자가 120,878명으로 8% 의 순이다. IMF 이후 실업자의 증가량을 보기 위해 98년 5월의 실업자수에서 97년 7월의 실업자수를 빼면 총 1,015,249명이다. IMF 이후 증가된 실업자중에서 고졸자가 467,788명으로 46%를 차

지하며, 다음으로 중졸자가 156,755명으로 15%, 대졸자가 131,440명으로 13%, 전문대졸자가 79,338명으로 8%를 차지한다.

고졸자는 IMF 이전에도 전체 실업자중 가장 많은 46%를 차지했으며, IMF 이후에도 가장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여 현재에도 가장 많은 실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97년 7월에서 98년 5월까지 양산된 실업자중에서 대체로 초등졸, 중졸과 고졸 실업자가 전체 전체 실업자의 7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IMF 이후의 실업이 대체로 중저학력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98년 5월의 청소년실업자는 총 590,263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약 40%이다. 이중에서 고졸자가 311,745명으로 5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대졸자가 93,153명으로 16%, 전문대졸자가 89,185명으로 15%, 중졸자가 23,447명으로 4%의 순이다. IMF 이후 실업자의 증가량을 보기위해 98년 5월의 실업자수에서 97년 7월의 실업자수를 빼면, 총 320,077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약 32%이다. IMF 이후 증가된 실업자중에서 고졸자가 174,062명으로 5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문대졸자가 54,296명으로 17%, 대졸자가 47,218명으로 15%, 중졸자가 14,371명으로 4%를 차지한다.

전체 연령층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졸자는 IMF 이전에도 전체 실업자중 가장 많은 51%를 차지했으며, IMF 이후에도 가장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여 현재에도 가장 많은 실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97년 7월에서 98년 5월까지 양산된 실업자중에서 전체 연령층과는 달리 중졸, 초등졸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청소년 연령층의 대부분의 학력이 고졸이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층에 속하는 고졸,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중퇴자를 일반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98년 5월에 실업계졸의 실업자수가 205,190으로, 일반계졸 106,555의 약 2배이다. 98년 1월과 비교하여 보면, 실업계졸은 약 8만여명 증가했는데 비해, 일반계졸은 약 1만4천명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변화는 98년 1월과 98년 3월에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98년 2월의 신규졸업자의 대거 배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신

규졸업자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라. 취업자

1) 전체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5월-7월)
Total	19010149	19080192	18993853	17777588	18045225	18408576	-601573
초등-졸업	2828534	2831955	2753659	2273240	2409114	2540083	-288451
초등-재학	0	0	0	0	0	0	0
초등-중퇴	318026	316091	309095	228054	257153	284898	-33128
중-졸업	3074051	3074443	3085745	2580228	2587713	2635555	-438496
중-재학	0	0	0	0	0	0	0
중-중퇴	253754	255199	259019	159090	159879	164418	-89336
고-졸업	6868054	6914930	7008724	7090914	6993853	7020024	151970
고-재학	1402	685	1056	1444	1977	1417	15
고-중퇴	289988	294353	287183	168574	175119	192152	-97836
전문대-졸업	1090506	1087391	1088334	898255	918243	921926	-168580
전문대-재학	26838	26903	29907	18593	17845	18447	-8391
전문대-중퇴	64524	67088	63706	11982	17275	17771	-46753
대학이상-졸업	2786703	2785092	2782803	3365951	3401497	3377361	590658
대학이상-재학	103127	106038	106955	100955	74012	79930	-23197
대학이상-중퇴	320274	318558	319833	204896	212128	218885	-101389
무학	984369	1001464	897834	675410	819419	935709	-48660

2) 청소년

교육정도	97년7월	97년9월	97년11월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5월-7월)
Total	5264019	5099885	5088099	4655835	4494296	4484005	-780014
초등-졸업	19894	21261	18550	16001	12829	12667	-7227
초등-재학	0	0	0	0	0	0	0
초등-중퇴	4416	3790	3788	1865	1888	1379	-3037
중-졸업	171472	170208	174036	145543	141487	150802	-20670
중-재학	0	0	0	1994	0	0	0
중-중퇴	27199	26676	28190	12630	15700	16977	-10222
고-졸업	2839660	2800628	2783279	2535317	2438075	2405453	-434207
고-재학	32258	45050	72770	82310	15214	17795	-14463
고-중퇴	97353	96498	97460	67794	65903	70118	-27235
전문대-졸업	706646	697116	694456	598922	637929	630108	-76538
전문대-재학	117676	77483	82761	90040	64124	60185	-57491
전문대-중퇴	65533	66831	63247	36052	38590	48240	-17293
대학이상-졸업	804908	781076	753338	783578	834815	833189	28281
대학이상-재학	260711	204899	204754	200917	140130	137900	-122811
대학이상-중퇴	114694	106758	109864	82872	87610	99003	-15691
무학	1598	1613	1606	0	0	189	-1409

2-1) 일반계와 실업계의 구분

교육정도	98년1월	98년3월	98년5월
일반-졸업	1012343	947594	959886
일반-재학	15231	2997	2916
일반-중퇴	25952	20072	22851
실업-졸업	1516072	1483816	1438553
실업-재학	67079	12217	14879
실업-중퇴	41624	45634	47071

(1) 전체

98년 5월 전체 연령층의 취업인구수는 18,408,576명이다. 이 중에서 고졸은 7,020,024명으로 가장 많은 3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대졸이 3,377,361명으로 18%, 중졸이 2,635,555명으로 14.3%, 초등졸이 2,540,083명으로 13.8%, 전문대졸이 921,926명으로 5%이다.

97년 7월에서 98년 5월까지의 취업인구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약 60여만명이 감소한 가운데, 중졸이 약44만명이 감소하고, 전문대졸이 약17만명 감소한 반면, 대졸은 약60만명이 증가하

고, 고졸은 약15만명 증가하였다.

(2) 청소년

98년 5월 청소년 취업인구수는 4,484,005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4%이다. 이 중에서 고졸이 2,405,453명으로 가장 많은 5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대졸이 833,189명으로 19%, 전문대졸이 630,108명으로 14%, 중졸이 150,802명으로 3%이다.

97년 7월에서 98년 5월까지의 취업인구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약78만여명이 감소한 가운데, 고졸이 약43만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약 8만명, 중졸이 약2만명 감소했다. 반면 대졸은 약3만명 증가했다.

여기서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의 취업자감소폭이 큰 것은 여름방학기간인 97년 7월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97년 9월과 98년 5월의 비교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할 경우 전문대 재학생은 17,298명, 대학 재학생은 82,08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대학 재학생의 취업감소폭은 크게 나타나 IMF 이후 실직당한 대학 재학생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98년 5월 일반계졸이 약96만명, 실업계졸이 약 144만명인 가운데, 98년 1월이후 일반계졸은 약5만여명, 실업계졸은 약 8만명정도 감소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실업계 재학생이 겨울방학기간인 98년 1월에 67,079명에서 98년 3월에 12,217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겨울방학기간동안 취업한 실업계 재학생이 일반계 재학생의 약4배이나, 개학이후에 모두 급감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한 실업계 재학생이 일반계 재학생의 약 4-5배를 유지하고 있다.

2.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규졸업이 발생하는 98년 2월을 중심으로 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15-29세에 속하는 학력별 졸업자의 모집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살펴봄으로써 학력별로 신규졸업자의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자료가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한 패널조사가 아니므로 월별 경제활동상태 인구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신규졸업자의 이동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만을 추출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98년 2월이 졸업시즌이라는 특성을 갖는 시기이므로 그 동안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량의 상당부분은 신규졸업자의 이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변화를 신규졸업자의 이동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신규졸업자만의 이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본의 패널조사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조사에 의해 축적된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다). 그리고 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는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절적인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논외로 하겠다.

1) 중졸

	98년1월	98년2월	(2월-1월)	98년3월	(3월-2월)
모집단	254246	879352	625106	256030	-623322
경제활동	165851	170775	4924	171479	704
취업	145543	148296	2753	141487	-6809
실업	20308	22479	2171	29992	7513
비경제	88395	708577	620182	84551	-624026

중졸 모집단의 수가 98년2월에 62만5천여명이 증가했으나, 98년 3월에 다시 62만3천여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와 감소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폭과 비슷하다. 따라서 98년 2월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중졸 신규졸업자의 대부분이 진학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98년 3월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98년 2월의 진학예정자가 대부분 상급학교로 입학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8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자의 99.4%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 고졸

	98년1월	98년2월	(2월-1월)	98년3월	(3월-2월)
모집단	3968492	4571494	603002	3983975	-587519
경제활동	2752320	2834889	82569	2769449	-65440
취업	2535317	2511771	-23546	2438075	-73696
실업	217003	323118	106115	331374	8256
비경제	1216172	1736605	520433	1214526	-522079

고졸 모집단의 수가 98년 2월에 60여만명이 증가했다가, 98년 3월에 다시 58만7천여명이 감소했다. 98년 2월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신규졸업자의 87%인 52만여명이 증가했고, 98년 3월에 비경제활동인구는 52만여명이 감소했다. 모집단수의 변동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폭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모집단의 증감은 대부분 상급학교 진학예정자가 98년 2월에 졸업과 동시에 고졸층에 진입하고, 98년 3월에 상급학교 입학과 동시에 고졸층에서 없어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1998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고졸자중 진학자의 수가 약47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인구의 이동이 98년 1월과 3월까지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졸 신규졸업자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98년 2월에 실업자가 10만여명 증가했다가 98년 3월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온 뒤에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신규졸업자 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98년 3월에 취업자가

7만여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8천여명밖에 늘지 않은 것은 실직당한 대부분의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2-1) 일반계줄

	98년1월	98년2월	(2월-1월)	98년3월	(3월-2월)
모집단	1689656	2081637	391981	1648685	-432952
경제활동	1105313	1100788	-4525	1074964	-25824
취업	1012343	982486	-29857	947594	-34892
실업	92970	118302	25332	127370	9068
비경제	584343	980849	396506	573721	-407128

2-2) 실업계줄

	98년1월	98년2월	(2월-1월)	98년3월	(3월-2월)
모집단	2270921	2474320	203399	2325005	-149315
경제활동	1640105	1726048	85943	1687821	-38227
취업	1516072	1521233	5161	1483816	-37417
실업	124033	204815	80782	204005	-810
비경제	630816	748272	117456	637184	-111088

일반계에 있어서 98년 2월과 3월에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전월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계 신규졸업자의 경제활동참여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8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일반계 졸업자의 83.8%가 전문대이상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계의 경우, 98년 2월에 경제활동인구는 8만6천여명 증가하였고, 98년 2월에 3만8천여명 감소하였다. 98년 2월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업자의 8만여명증가에 따른 것이며, 98년 3월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취업자의 3만7천여명 감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신규졸업자의 상당수가 실업자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취업자의 감소와 실업자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감소된 취업자의 대부분 비경제활동인

구로 이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98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실업계 졸업자의 35.6%만이 전문대이상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전문대졸

	98년1월	98년2월	(2월-1월)	98년3월	(3월-2월)
모집단	791606	920005	128399	908608	-11397
경제활동	637638	719479	81841	730167	10688
취업	598922	630609	31687	637929	7320
실업	38716	88870	50154	92238	3368
비경제	153968	200526	46558	178441	-22085

전문대졸 모집단수가 98년 2월에 약13만명이 증가했다가 98년 3월에 약1만여명 감소했다. 98년 2월에는 경제활동인구가 8만여명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가 4만6천여명 증가하였다.

98년 2월에 증가된 경제활동인구중 3만여명(39%)은 취업자로, 5만여명(61%)은 실업자로 이전되었다. 98년 3월에도 취업자와 실업자는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98년 2월 4만6천여명이 증가하였으나, 98년 3월에는 2만여명이 감소하고 있다. 1998년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전문대졸업자중에서 상급학교 진학자의 수가 16,591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8년 3월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이러한 상급학교 진학자의 입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대졸이상

	98년1월	98년2월	(2월-1월)	98년3월	(3월-2월)
모집단	1066704	1178210	111506	1240749	62539
경제활동	833249	894195	60946	935562	41367
취업	783578	813263	29685	834815	21552
실업	49671	80932	31261	100747	19815
비경제	233455	284015	50560	305187	21172

대졸 모집단수가 98년 2월에 약11만여명이 증가했다가 98년 3월에 다시 6만여명 증가하였다. 98년 2월에는 경제활동인구가 6만여명 증가하였고, 3월에 다시 4만여명 증가하였다.

98년 2월에는 증가된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가 약3만명(49%), 실업자가 3만1천여명(51%)이었으며, 3월에는 취업자가 약2만2천명(52%), 실업자가 2만여명(48%)이었다. 취업자의 증가량과 실업자의 증가량이 2월과 3월동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98년 2월과 3월동안 비경제활동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반하여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두달동안 모집단의 절대수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모집단의 증가는 신규졸업자의 영향으로 보인다.(대학졸업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2월 말에 행해지므로 3월까지 신규졸업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청소년 노동시장의 취업구조

15-29세에 속하는 청소년 노동시장의 취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취업자의 근로시간, 종사지위, 종사산업, 종사직업을 학력별로 살펴보았다. 시기는 자료상 가장 최근인 98년 5월을 시점으로 하였다.

가. 1주간 근로시간

	일시 휴직	1-17 시간	18-26 시간	27-35 시간	36-44 시간	45-53 시간	54시간 이상	합계
중학-졸업	0	2188	3502	6065	22082	45656	71309	150802
	0.0%	1.5%	2.3%	4.0%	14.6%	30.3%	47.3%	100.0%
고등-졸업	20392	25982	39219	47120	342417	911012	1019310	2405452
	0.8%	1.1%	1.6%	2.0%	14.2%	37.9%	42.4%	100.0%
고등-중퇴	0	828	3696	1407	10574	13804	39809	70118
	0.0%	1.2%	5.3%	2.0%	15.1%	19.7%	56.8%	100.0%
전문대-졸업	1650	4400	9993	13687	105158	283853	211366	630107
	0.3%	0.7%	1.6%	2.2%	16.7%	45.0%	33.5%	100.0%
전문대-재학	0	6471	3965	6468	17146	20984	5153	60187
	0.0%	10.8%	6.6%	10.7%	28.5%	34.9%	8.6%	100.0%
전문대-중퇴	0	1901	464	2103	7834	17287	18650	48239
	0.0%	3.9%	1.0%	4.4%	16.2%	35.8%	38.7%	100.0%
대학-졸업	1179	34120	18849	25982	187380	333498	232181	833189
	0.1%	4.1%	2.3%	3.1%	22.5%	40.0%	27.9%	100.0%
대학-재학	1190	53748	12347	8106	29410	25158	7942	137901
	0.9%	39.0%	9.0%	5.9%	21.3%	18.2%	5.8%	100.0%
대학-중퇴	0	5878	6416	3557	21081	23799	38272	99003
	0.0%	5.9%	6.5%	3.6%	21.3%	24.0%	38.7%	100.0%

학력별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54시간 이상’이라는 최장시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학력층은 중학-졸업, 고등-졸업, 고등-중퇴, 전문대-중퇴, 대학-중퇴이다. 그리고 그보다 작은 ‘45-53시간’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학력층은 전문대-졸업, 전문대-재학, 대학-졸업이다. 따라서 저학력이고 중퇴자일수록 장시간 노동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7시간’은 불완전노동으로 다루어지는데, 전문대-재학과 대학-재학이 높은 분포를 보인다. 특히 대학-재학은 여기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데, 대학 재학생이 주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파트타임직

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파트타임직업이 대체로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 재학생에게 주로 열려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종사지위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중학-졸업	19943	83903	23491	1533	8036	13897	150803
	13.2%	55.6%	15.6%	1.0%	5.3%	9.2%	100.0%
고등-졸업	965670	917652	172581	38919	156105	154526	2405453
	40.1%	38.1%	7.2%	1.6%	6.5%	6.4%	100.0%
고등-중퇴	13725	32598	13281	1015	5331	4168	70118
	19.6%	46.5%	18.9%	1.4%	7.6%	5.9%	100.0%
전문대-졸업	365167	193903	13434	16590	21938	19074	630106
	58.0%	30.8%	2.1%	2.6%	3.5%	3.0%	100.0%
전문대-재학	22550	22515	11176	0	2234	1711	60186
	37.5%	37.4%	18.6%	0.0%	3.7%	2.8%	100.0%
전문대-중퇴	14045	17397	8463	0	1947	6388	48240
	29.1%	36.1%	17.5%	0.0%	4.0%	13.2%	100.0%
대학-졸업	541887	192604	12518	16459	48408	20436	833189
	65.0%	23.1%	1.5%	2.0%	5.8%	2.5%	100.0%
대학-재학	35492	36504	21725	0	40515	3664	137900
	25.7%	26.5%	15.8%	0.0%	29.4%	2.7%	100.0%
대학-중퇴	24296	40812	14874	1573	8559	8889	99003
	24.5%	41.2%	15.0%	1.6%	8.6%	9.0%	100.0%

종사지위에 대한 분류기준을 설명하면, 1년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상용’, 1개월이상 1년미만 근무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임시’, 1개월미만 근무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일용’이다.

‘상용’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학력층은 고등-졸업, 전문대-졸업, 전문대-재학, 대학-졸업이며, ‘임시’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학력층은 중학-졸업, 고등-중퇴, 전문대-중퇴, 대학-중퇴이다. 그리고 대학-재학의 경우에는 자영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종사지위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임시’와 ‘일용’을 합하여 그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졸업이 71.2%로 가장 높고, 고등-중퇴가 65.4%, 대학-중퇴가 56.2%, 전문대-재학이 56%, 전문대

-중퇴가 53.6%, 고등-졸업이 45.3%, 대학-재학이 42.3%, 전문대-졸업이 32.9%, 대학-졸업이 24.6%의 순이다. 학력이 낮고 중퇴자일수록 종사지위의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 종사산업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학-졸업	10275	762	500	57547	196	20498	20147	28070
	6.8%	0.5%	0.3%	38.2%	0.1%	13.6%	13.4%	18.6%
고등-졸업	55071	4152	196	595236	3597	227730	620695	217051
	2.3%	0.2%	0.0%	24.7%	0.1%	9.5%	25.8%	9.0%
고등-중퇴	3346	0	290	16479	363	7213	13560	15294
	4.8%	0.0%	0.4%	23.5%	0.5%	10.3%	19.3%	21.8%
전문대-졸업	3596	0	0	89773	1149	50559	121739	31303
	0.6%	0.0%	0.0%	14.2%	0.2%	8.0%	19.3%	5.0%
전문대-재학	1030	0	0	13104	0	3099	10581	8547
	1.7%	0.0%	0.0%	21.8%	0.0%	5.1%	17.6%	14.2%
전문대-중퇴	3835	0	0	9628	0	2687	11036	6878
	7.9%	0.0%	0.0%	20.0%	0.0%	5.6%	22.9%	14.3%
대학-졸업	5055	0	0	135221	4412	5.6%	122315	18384
	0.6%	0.0%	0.0%	16.2%	0.5%	0.0%	14.7%	2.2%
대학-재학	632	0	0	9124	455	4883	10795	12928
	0.5%	0.0%	0.0%	6.6%	0.3%	3.5%	7.8%	9.4%
대학-중퇴	5109	0	0	12450	0	5730	20848	11313
	5.2%	0.0%	0.0%	12.6%	0.0%	5.8%	21.1%	11.4%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	공공행 정, 국방 및 사회보 장행정	교육서 비스업	기타 공 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및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 기관	합계
중학-졸업	6404	807	2379	457	259	2500	0	0	150801
	4.2%	0.5%	1.6%	0.3%	0.2%	1.7%	0.0%	0.0%	100.0%
고등-졸업	112927	123364	136021	56149	121419	127719	1746	2379	2405452
	4.7%	5.1%	5.7%	2.3%	5.0%	5.3%	0.1%	0.1%	100.0%
고등-중퇴	4478	1190	1074		1433	5400	0	0	70120
	6.4%	1.7%	1.5%	0.0%	2.0%	7.7%	0.0%	0.0%	100.0%
전문대-졸업	27753	31988	76041	27643	146502	21478	584	0	630108
	4.4%	5.1%	12.1%	4.4%	23.3%	3.4%	0.1%	0.0%	100.0%
전문대-재학	1885	5255	4525	581	9297	2283	0	0	60187
	3.1%	8.7%	7.5%	1.0%	15.4%	3.8%	0.0%	0.0%	100.0%
전문대-중퇴	1186	3332	4050	977	2933	1698	0	0	48240
	2.5%	6.9%	8.4%	2.0%	6.1%	3.5%	0.0%	0.0%	100.0%
대학-졸업	39538	59922	97454	35961	231926	41915	540	0	833188
	4.7%	7.2%	11.7%	4.3%	27.8%	5.0%	0.1%	0.0%	100.0%
대학-재학	2800	9440	9866	5319	65937	5724	0	0	137903
	2.0%	6.8%	7.2%	3.9%	47.8%	4.2%	0.0%	0.0%	100.0%
대학-중퇴	4329	6446	10323	1122	13331	7807	196	0	99004
	4.4%	6.5%	10.4%	1.1%	13.5%	7.9%	0.2%	0.0%	100.0%

청소년취업자의 중사산업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졸업자는 주로 제조업(38.2%)에, 고등-졸업자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5.8%)과 제조업(24.7%)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문대-졸업자는 교육서비스업(23.3%)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9.3%)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졸업자는 교육서비스업(27.8%), 제조업(16.2),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14.7%)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제조업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학력층은 중학-졸업, 고등-중퇴, 전문대-재학이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학력층은 고등-졸업, 전문대-중퇴, 대학-중퇴이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업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학력층은 전문대-졸업, 대학-졸업, 대학-재학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라. 종사직업

	임·법·공 무원, 고 위 임·직 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 문가	사무·직 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 과 시장 판매근 로자	농업·및 숙련 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 로자	장·치, 기 계 조·작 원 및 조립·원	단·순 노동·직 종·사·자	합계
중학-졸업	0 0.0%	0 0.0%	4547 3.0%	2013 1.3%	31318 20.8%	9448 6.3%	51581 34.2%	25107 16.6%	26787 17.8%	150801 100.0%
고등-졸업	4448 0.2%	3949 0.2%	184103 7.7%	619695 25.8%	670464 27.9%	50658 2.1%	355796 14.8%	352553 14.7%	163786 6.8%	2405452 100.0%
고등-중퇴	0 0.0%	0 0.0%	243 0.3%	3851 5.5%	22004 31.4%	3037 4.3%	14244 20.3%	13233 18.9%	13506 19.3%	70118 100.0%
전문대-졸업	1286 0.2%	28973 4.6%	244656 38.8%	182980 29.0%	98976 15.7%	3072 0.5%	33330 5.3%	21234 3.4%	15600 2.5%	630107 100.0%
전문대-재학	0 0.0%	524 0.9%	9593 15.9%	21338 35.5%	13065 21.7%	173 0.3%	6182 10.3%	1604 2.7%	7706 12.8%	60185 100.0%
전문대-중퇴	0 0.0%	0 0.0%	4407 9.1%	10465 21.7%	13511 28.0%	4008 8.3%	3190 6.6%	5709 11.8%	6951 14.4%	48241 100.0%
대학-졸업	5071 0.6%	216950 26.0%	270248 32.4%	253846 30.5%	54834 6.6%	3935 0.5%	11849 1.4%	9790 1.2%	6666 0.8%	833189 100.0%
대학-재학	0 0.0%	4529 3.3%	64817 47.0%	36158 26.2%	20481 14.9%	632 0.5%	2206 1.6%	2830 2.1%	6248 4.5%	137901 100.0%
대학-중퇴	1031 1.0%	1167 1.2%	19841 20.0%	20335 20.5%	25868 26.1%	4622 4.7%	7347 7.4%	8251 8.3%	10542 10.6%	99004 100.0%

청소년취업자의 종사직업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학-졸업자는 주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34.2%)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20.8%)에 분포되어있고, 고등-졸업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27.9%)와 사무직원(25.8%)에 분포되어있다. 그리고 전문대-졸업자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38.8%)와 사무직원(29.0%)에 주로 분포되어있으며, 대학-졸업자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32.4%), 사무직원(30.5), 전문가(26.0%)에 주로 분포되어있다.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학력층은 중학-졸업,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학력층은 고등-졸업, 고등-중퇴, 전문대-중퇴, 대학-중퇴이다. 사무직원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학력층은 전문대-재학이며, 기술공 및 준전문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학력층은 전문대-졸업, 대학-졸업, 대학-재학이다.

4. 청소년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분석

15세-29세의 청소년기 동안 나이가 들(aging)에 따라 노동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나이가 들에 따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를 학력별, 성별로 구분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성별로 분석할 때에는 기혼률(기혼자수/(미혼자수+기혼자수))을 고려하여 혼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1998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15-29세에 속하는 전 학력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뒤, 고졸, 전문대졸, 대졸의 순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학력별 분석에서 대상은 해당 학력의 최소 졸업가능 연령부터 29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고졸의 경우에는 18-29세, 전문대졸의 경우에는 20-29세, 대졸의 경우에는 22-29세를 각각 포함한다.

1) 15-29세

(1) 합계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15	769321	6024	0.8%	5734	290	4.8%	763297
16	846694	12439	1.5%	10736	1703	13.7%	834255
17	829193	24912	3.0%	19775	5137	20.6%	804281
18	752684	149837	19.9%	116951	32886	21.9%	602847
19	637443	206855	32.5%	169758	37097	17.9%	430588
20	507481	237770	46.9%	199373	38397	16.1%	269711
21	442857	231504	52.3%	193172	38332	16.6%	211353
22	577032	324475	56.2%	279272	45203	13.9%	252557
23	712357	454075	63.7%	400547	53528	11.8%	258282
24	754804	501238	66.4%	421813	79425	15.8%	253566
25	844056	568607	67.4%	506122	62485	11.0%	275449
26	819494	584670	71.3%	512456	72214	12.4%	234824
27	851197	596954	70.1%	552373	44581	7.5%	254243
28	804765	562284	69.9%	522402	39882	7.1%	242481
29	875501	612623	70.0%	573521	39102	6.4%	262878
Total	11024879	5074267	46.0%	4484005	590262	11.6%	5950612

먼저 15-2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18-20세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증한 뒤,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6세에 71.3%로 정점을 기록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5-17세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3%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15-17세 연령대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있고, 적어도 만18세가 되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17세 동안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7-20세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증하는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새롭게 대거 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5-29세 청소년 실업률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15-18세동안에 급격히 높아졌다가 18세를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후 24세에서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15-18세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이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 연령층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15세에서 18세로 될수록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실업자의 비율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2) 남자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15	400291	3481	0.9%	3191	290	8.3%	396810
16	454641	9881	2.2%	8598	1283	13.0%	444760
17	416726	15098	3.6%	10220	4878	32.3%	401628
18	392601	68093	17.3%	46485	21608	31.7%	324508
19	295068	77285	26.2%	57773	19512	25.2%	217783
20	158302	59562	37.6%	49383	10179	17.1%	98740
21	127583	56794	44.5%	45017	11777	20.7%	70789
22	237531	114910	48.4%	91890	23020	20.0%	122621
23	327879	191714	58.5%	163046	28668	15.0%	136165
24	369103	242476	65.7%	186778	55698	23.0%	126627
25	407447	297864	73.1%	257413	40451	13.6%	109583
26	409287	350301	85.6%	294736	55565	15.9%	58986
27	437184	389954	89.2%	359313	30641	7.9%	47230
28	398503	370114	92.9%	337951	32163	8.7%	28389
29	445110	423480	95.1%	394159	29321	6.9%	21630
Total	5277256	2671007	50.6%	2305953	365054	13.7%	2606249

15-29세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7세 동안에는 아주 낮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18-20세 동안에 급증하였다. 그 이후에는 증가폭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정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5-29세 남자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7-18세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24세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이후에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24세에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은 19-23세 사이의 전체 연령층의 수가 다른 연령층보다 적은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의 수가 적은 것은 군복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제대 후 24세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실업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3)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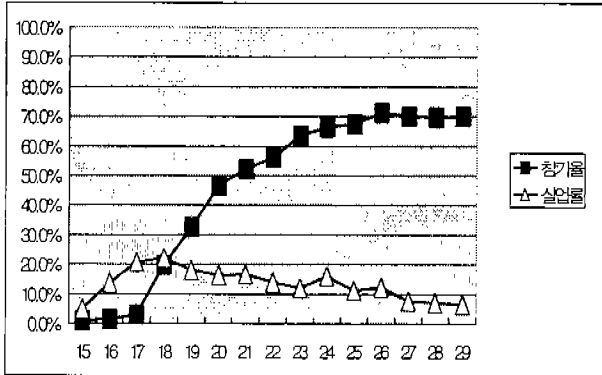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15	369029	2543	0.7%	2543	0	0.0%	366486
16	392052	2557	0.7%	2138	419	16.4%	389495
17	412467	9814	2.4%	9555	259	2.6%	402653
18	360084	81745	22.7%	70467	11278	13.8%	278339
19	342374	129569	37.8%	111984	17585	13.6%	212805
20	349180	178209	51.0%	149991	28218	15.8%	170971
21	315273	174710	55.4%	148155	26555	15.2%	140563
22	339501	209565	61.7%	187382	22183	10.6%	129936
23	384479	262362	68.2%	237501	24861	9.5%	122117
24	385701	258762	67.1%	235035	23727	9.2%	126939
25	436610	270744	62.0%	248709	22035	8.1%	165866
26	410206	234368	57.1%	217719	16649	7.1%	175838
27	414013	207000	50.0%	193060	13940	6.7%	207013
28	406261	192169	47.3%	184450	7719	4.0%	214092
29	430391	189143	43.9%	179362	9781	5.2%	241248
Total	5747621	2403260	41.8%	2178051	225209	9.4%	3344361

15-29세의 여자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7세 동안에는 3%미만의 낮은 참가율을 보이다가 18-20세 동안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23세에 68.2%를 정점으로 그 이후 완만하게 감소를 보이고 있다. 남자청소년과는 달리 여자청소년의 23세 이후의 완만한 감소세는 여성의 혼인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전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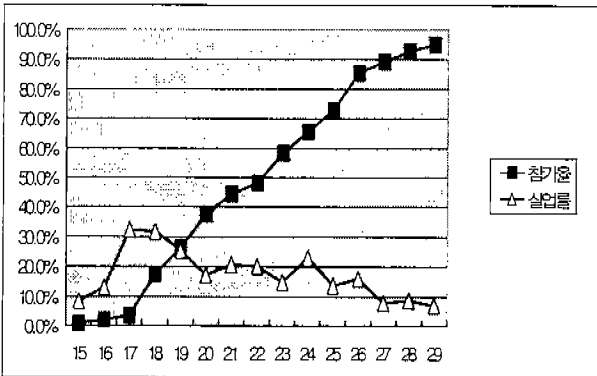
15-29세 여자청소년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세에 증가했다가 17세에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세에 15.8%를 정점으로 완만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1-1) 1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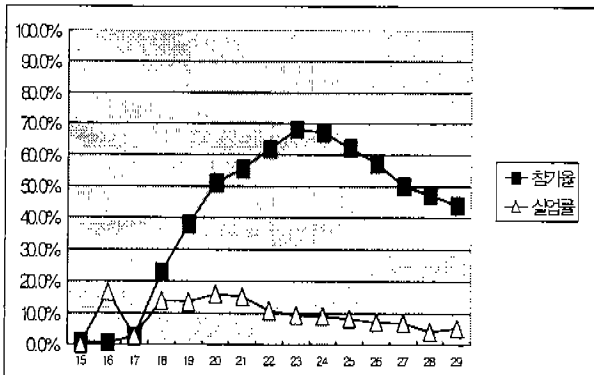
- 합계



- 남자



- 여자



2) 고졸

(1) 합계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18	215267	110580	51.4%	86582	23998	21.7%	104687
19	215326	146178	67.9%	118810	27368	18.7%	69148
20	182570	143808	78.8%	125171	18637	13.0%	38762
21	158668	126508	79.7%	111836	14672	11.6%	32160
22	215506	165238	76.7%	146175	19063	11.5%	50268
23	312147	243047	77.9%	213354	29693	12.2%	69100
24	352414	267608	75.9%	226486	41122	15.4%	84806
25	430008	307461	71.5%	278473	28988	9.4%	122547
26	430037	299885	69.7%	260519	39366	13.1%	130152
27	452881	301227	66.5%	282851	18376	6.1%	151654
28	439418	287426	65.4%	262517	24909	8.7%	151992
29	481239	312411	64.9%	288335	24076	7.7%	168828
Total	3897820	2717197	69.7%	2405451	311746	11.5%	1180623

고졸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0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1세에 79.7%를 정점으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18-20세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의 급격한 증가는 18-19세에 해당하는 고졸청소년의 상당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재수나 군입대준비, 진로탐색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노동시장진입을 유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18세의 일부가 재학생이므로 18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1세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여자청소년의 혼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졸청소년의 실업률은 18세가 가장 높고, 19-20세 사이에 감소폭이 크며,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24세와 26세에 다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24세와 26세의 실업률 증가는 고졸남자 청소년의 군제대 후, 사회로의 복귀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남자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기혼률
18	115088	48794	42.4%	32043	16751	34.3%	66294	1.1%
19	84984	45011	53.0%	33412	11599	25.8%	39973	1.0%
20	40035	27069	67.6%	23119	3950	14.6%	12966	8.1%
21	36546	25250	69.1%	22168	3082	12.2%	11296	8.4%
22	84879	68691	80.9%	56061	12630	18.4%	16188	5.3%
23	130092	115462	88.8%	99095	16367	14.2%	14630	7.9%
24	155829	142706	91.6%	110654	32052	22.5%	13123	10.5%
25	191321	176375	92.2%	158567	17808	10.1%	14946	23.6%
26	199259	184516	92.6%	154462	30054	16.3%	14743	30.1%
27	218497	204050	93.4%	190816	13234	6.5%	14447	41.4%
28	199501	190844	95.7%	172001	18843	9.9%	8657	51.0%
29	210676	204240	96.9%	186170	18070	8.8%	6436	59.8%
Total	1672044	1435420	85.8%	1239502	195918	13.6%	236624	27.6%

고졸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에 가장 낮으며, 18-23세동안 증가폭이 매우 크다. 그리고 23세 이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고졸남자의 전체 인원을 보면, 19-22세 동안의 인원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22세부터 전체 인원과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모집단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남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복무’에 해당되므로 고졸남자 청소년의 대부분이 19-21세동안 군복무를 하고, 상당수가 22세부터 사회로 복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4세까지의 급격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이후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완만한 증가는 고졸남자의 경우에 22-24세가 되면 진로탐색, 군복무와 같은 준비기간을 모두 마치고 직업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대부분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졸남자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에 가장 높으며,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다시 22-24세 동안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22-24세 동안의 실업률 증가는 고졸 남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와 연관이 있다. 고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겪게 되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군복무에 의해 대부분 2-3년간 유예되어, 실제로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22-24세동

안 직장으로서의 불안한 이행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졸남자의 경우 기혼률은 25세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25세 이후의 기혼률 증가는 경제활동참가율 90%이상의 완만한 증가세 유지와 실업률의 점차적인 감소 현상과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고졸남자 청소년에게 있어서 혼인은 경제활동참가와 정적 관계이며, 실업과 부적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여자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기혼률
18	100179	61786	61.7%	54539	7247	11.7%	38393	2.5%
19	130344	101168	77.6%	85399	15769	15.6%	29176	4.8%
20	142535	116739	81.9%	102052	14687	12.6%	25796	6.4%
21	122124	101259	82.9%	89669	11590	11.4%	20865	15.0%
22	130627	96547	73.9%	90114	6433	6.7%	34080	28.3%
23	182055	127585	70.1%	114259	13326	10.4%	54470	34.9%
24	196586	124902	63.5%	115832	9070	7.3%	71684	48.1%
25	238686	131085	54.9%	119906	11179	8.5%	107601	58.3%
26	230777	115369	50.0%	106057	9312	8.1%	115408	69.1%
27	234385	97177	41.5%	92035	5142	5.3%	137208	76.3%
28	239917	96582	40.3%	90516	6066	6.3%	143335	85.5%
29	270564	108172	40.0%	102166	6006	5.6%	162392	87.0%
Total	2225782	1281779	57.6%	1165952	115827	9.0%	944003	51.6%

고졸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1세 동안 증가하다가 22세부터 계속 감소하였으며, 27세부터는 감소폭이 매우 완만하다. 18-21세 동안에만 고졸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으며, 22세부터는 고졸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다. 특히 20대 중반부터는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졸여자의 경우, 21세를 정점으로 22세부터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21세 이후 기혼률의 본격적인 증가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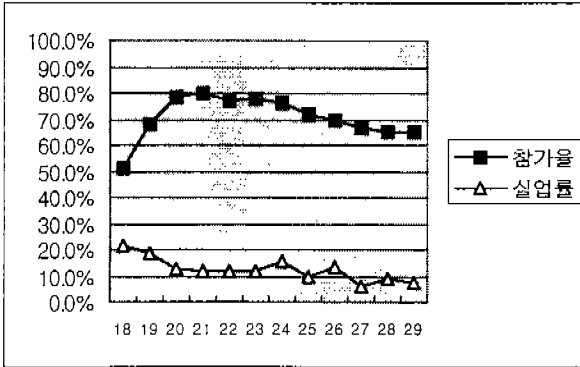
고졸여자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9세에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하며, 23세에 다시 증가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졸 여자청소년의 기혼률은 21세 이후 본격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5세부터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29세까지 기혼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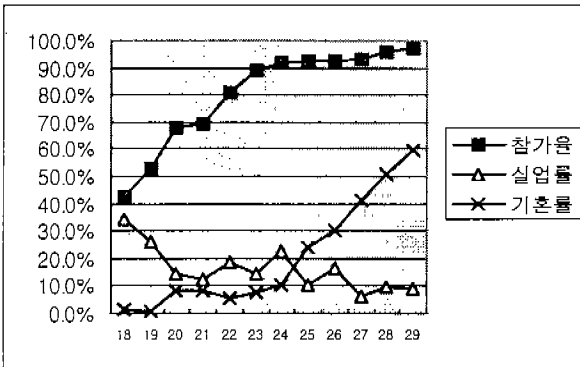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점점 커진다. 따라서 고졸 여자청소년에게 있어서 혼인은 경제활동참가와 부적으로 상관이 높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고졸 여자청소년들은 결혼한 후에 가사와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참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 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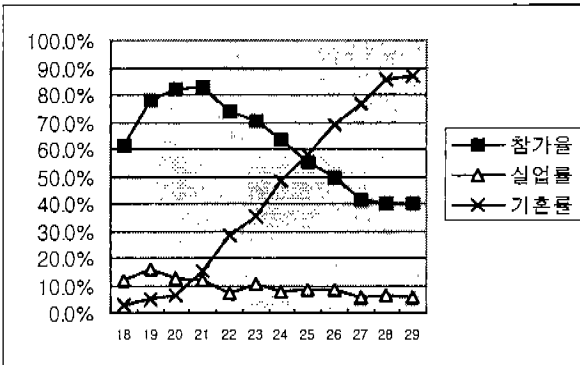
- 합계



- 남자



- 여자



3) 전문대졸

(1)합계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20	43731	34039	77.8%	22956	11083	32.6%	9692
21	45561	35439	77.8%	24764	10675	30.1%	10122
22	85460	69871	81.8%	58937	10934	15.6%	15589
23	98639	81950	83.1%	73063	8887	10.8%	16689
24	104108	86434	83.0%	70012	16422	19.0%	17674
25	124359	99679	80.2%	90804	8875	8.9%	24680
26	112624	91237	81.0%	83136	8101	8.9%	21387
27	98781	78428	79.4%	69914	8514	10.9%	20353
28	90284	68292	75.6%	65614	2678	3.9%	21992
29	97652	71668	73.4%	69629	2039	2.8%	25984
Total	903456	719294	79.6%	630108	89186	12.4%	184162

전문대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2세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3세를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문대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는 달리 졸업후 경제활동참여의 유예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세를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현상은 여자청소년의 혼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졸 청소년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에 가장 높고, 점점 감소하다가 24세에 다시 증가했다가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4세에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남자청소년의 군복무와 역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세한 분석은 다음의 성별 분석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남자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기혼률
20	6782	3213	47.4%	1926	1287	40.1%	3569	0.0%
21	3375	2807	83.2%	1883	924	32.9%	568	0.0%
22	12718	10840	85.2%	8230	2610	24.1%	1878	0.0%
23	28844	23333	80.9%	17615	5718	24.5%	5511	3.0%
24	43773	37612	85.9%	26867	10745	28.6%	6161	0.4%
25	53429	46954	87.9%	40366	6588	14.0%	6475	7.6%
26	54324	52603	96.8%	46368	6235	11.9%	1721	11.0%
27	45910	44362	96.6%	41486	2876	6.5%	1548	25.1%
28	40669	39627	97.4%	36949	2678	6.8%	1042	40.4%
29	57227	54408	95.1%	53197	1211	2.2%	2819	61.7%
Total	347582	316290	91.0%	274887	41403	13.1%	31292	21.4%

전문대졸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에 가장 낮으며, 20-21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세에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것은 20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전문대졸 남자가 군복무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된 전문대졸 남자의 상당수가 군복무를 준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이 20-21세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21세가 20세보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급증하였다. 이것은 20세에 전문대 졸업후, 군복무를 준비했던 지각 입대자들의 대부분이 입대한 결과이다.

21세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완만한 증가세는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동반하며, 이는 전문대 졸업자의 군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결과로 보인다.

전문대졸 남자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에 가장 높으며,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24세에 높아진 후 완만히 감소하였다.

20세에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24세에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은 전문대졸 남자청소년 대부분

이 24세가 되면, 군복무와 진로탐색을 마친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겪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3) 여자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기혼률
20	36949	30826	83.4%	21030	9796	31.8%	6123	0.0%
21	42187	32633	77.4%	22881	9752	29.9%	9554	2.0%
22	72743	59032	81.2%	50708	8324	14.1%	13711	2.5%
23	69794	58616	84.0%	55448	3168	5.4%	11178	7.6%
24	60334	48821	80.9%	43145	5676	11.6%	11513	20.0%
25	70930	52725	74.3%	50438	2287	4.3%	18205	34.6%
26	58301	38635	66.3%	36768	1867	4.8%	19666	46.1%
27	52872	34067	64.4%	28429	5638	16.5%	18805	49.7%
28	49615	28665	57.8%	28665	0	0.0%	20950	61.8%
29	40425	17260	42.7%	16432	828	4.8%	23165	79.6%
Total	555877	403007	72.5%	355223	47784	11.9%	152870	28.9%

전문대졸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3세 동안 약 80% 내외를 유지하다가 23세의 84.0%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문대졸 여자 24세부터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24세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기혼률의 증가추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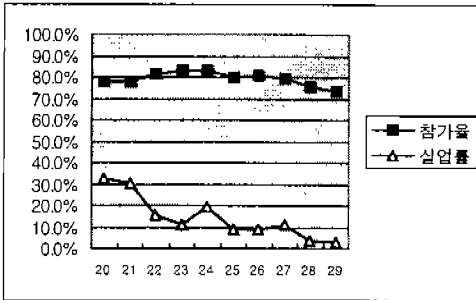
전문대졸 여자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가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24세와 27세에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24세와 27세의 실업률의 증가는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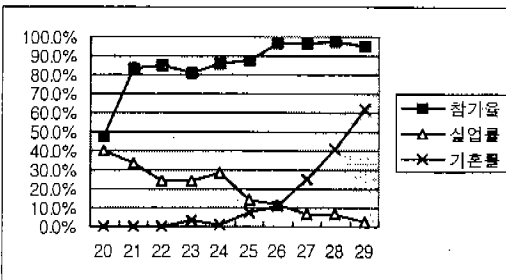
전문대졸 여자청소년에게 있어서 혼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1) 전문대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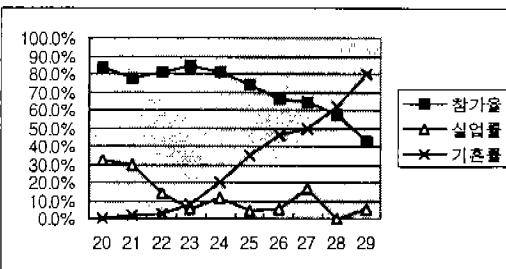
- 합계



- 남자



- 여자



4) 대졸

(1)합계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22	54123	35296	65.2%	29343	5953	16.9%	18827
23	84406	63632	75.4%	53522	10110	15.9%	20774
24	111719	83642	74.9%	71397	12245	14.6%	28077
25	152870	108049	70.7%	91888	16161	15.0%	44821
26	186454	148392	79.6%	127676	20716	14.0%	38062
27	208406	159543	76.6%	150850	8693	5.4%	48863
28	193965	151923	78.3%	144254	7669	5.0%	42042
29	213285	165684	77.7%	157534	8150	4.9%	47601
Total	1216970	926340	76.1%	833187	93153	10.1%	290630

대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22-26세 동안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26세-29세 동안에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5세와 27세에 약간 감소하였다.

고졸 청소년이나 전문대졸 청소년과는 달리 20대 중반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의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

대졸 청소년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2세에 가장 높고,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가운데, 27세에 하락폭이 매우 크다.

(2) 남자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기혼률
22	5061	2519	49.8%	2519	0	0.0%	2542	0.0%
23	16051	12372	77.1%	8747	3625	29.3%	3679	7.4%
24	27346	18317	67.0%	13208	5109	27.9%	9029	10.2%
25	57570	37779	65.6%	28624	9155	24.2%	19791	6.6%
26	94776	81768	86.3%	66276	15492	18.9%	13008	11.3%
27	109748	94974	86.5%	87389	7585	8.0%	14774	30.9%
28	114307	104209	91.2%	97459	6750	6.5%	10098	47.0%
29	134343	123644	92.0%	116847	6797	5.5%	10699	48.9%
Total	559492	475582	85.0%	421069	54513	11.5%	83910	30.7%

대졸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2세에 가장 낮으며, 23세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24-25세에 다시 감소하였다. 이후 26세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2세에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는 것은 22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대졸 남자가 군복무중인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으로 포함된 대졸 남자의 상당수가 군복무를 준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졸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6세에 급증한 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은 대졸 남자는 26세가 되면 대부분 군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졸 남자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3세에 가장 높으며, 이후 감소하다가 27세에 급감한 뒤, 다시 완만히 감소하였다.

23세에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이다.

27세에 실업률이 급감하는 현상은 군전역 후 신규졸업자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이전이 26세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27세에는 신규졸업자 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거의 없이 대부분 기존졸업자의 직업탐색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자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여자

연령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기혼률
22	49061	32777	66.8%	26824	5953	18.2%	16284	1.1%
23	68356	51261	75.0%	44776	6485	12.7%	17095	3.2%
24	84373	65325	77.4%	58189	7136	10.9%	19048	9.3%
25	95300	70270	73.7%	63264	7006	10.0%	25030	24.3%
26	91678	66624	72.7%	61400	5224	7.8%	25054	42.9%
27	98657	64569	65.4%	63461	1108	1.7%	34088	51.1%
28	79658	47714	59.9%	46795	919	1.9%	31944	66.6%
29	78941	42039	53.3%	40687	1352	3.2%	36902	77.1%
Total	657476	450758	68.6%	412119	38639	8.6%	206718	36.1%

대졸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2-24세 동안 증가하다가 24세를 정점으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대졸 여자의 25세부터의 기혼률의 본격적인 증가추세는 전문대졸 여자에게 있어서 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역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다.

대졸 여자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2세가 가장 높고,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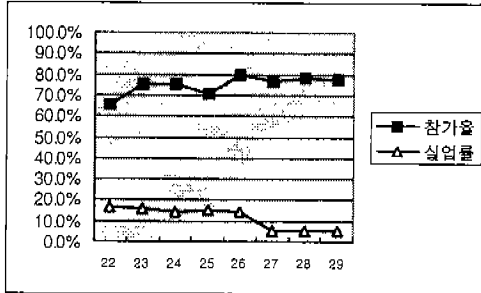
감소하다가 27세에 급감하였다.

24세와 27세의 실업률의 증가는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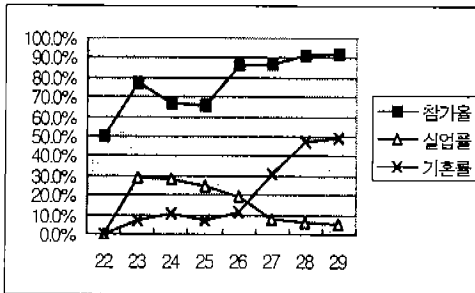
대졸 여자청소년에게 있어서도 혼인은 경제활동참가와 역시 부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4-1) 대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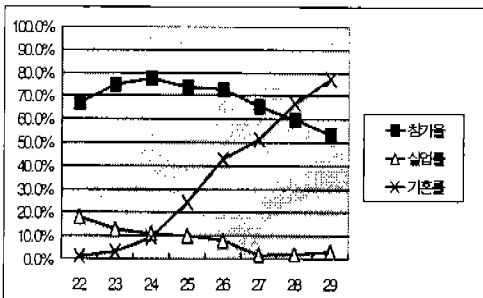
- 합계



- 남자



- 여자



V. 근로청소년의 고용실태와 의식

1.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 학력과 직업

	성별		전체	
	여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4	2.2%	4	2.2%
고졸(일반계)	33	18.0%	33	18.0%
고졸(실업계)	98	53.6%	98	53.6%
전문대졸	33	18.0%	33	18.0%
대졸	15	8.2%	15	8.2%
전체	183	100.0%	183	100.0%
직업				
전문직	23	13.4%	23	13.4%
사무직	90	52.3%	90	52.3%
판매서비스직	34	19.8%	34	19.8%
생산직	25	14.5%	25	14.5%
전체	172	100.0%	172	100.0%

응답자 183명¹⁾ 모두가 여자인 가운데, 학력별로는 고졸 실업계가 5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졸 일반계와 전문대졸이 각각 18.0%이고, 대졸이 8.2%, 중졸이하가 2.2%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이 5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이 19.8%, 생산직이 14.5%, 전문직이 13.4%이다.

1) 학력별 응답자와 직업별 응답자의 전체수가 다른 것은 직업에 응답하지 않은 missing case 때문이다. 이후부터의 각 항목별 전체 분포는 학력별 응답분포를 기준으로 기술하도록 하겠다.

나. 성장지역

	성장지역								전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도시(시)		소도시(군)		농어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2	50.0%	2	50.0%					4	100.0%
고졸(일반계)	3	9.4%	7	21.9%	2	6.3%	20	62.5%	32	100.0%
고졸(실업계)	13	13.3%	10	10.2%	6	6.1%	69	70.4%	98	100.0%
전문대졸	5	15.2%	7	21.2%	2	6.1%	19	57.6%	33	100.0%
대졸	5	33.3%	5	33.3%	1	6.7%	4	26.7%	15	100.0%
전체	28	15.4%	31	17.0%	11	6.0%	112	61.5%	182	100.0%
직업										
전문직	6	26.1%	4	17.4%	2	8.7%	11	47.8%	23	100.0%
사무직	14	15.6%	16	17.8%	3	3.3%	57	63.3%	90	100.0%
판매서비스직	5	14.7%	5	14.7%	5	14.7%	19	55.9%	34	100.0%
생산직	2	8.3%	4	16.7%			18	75.0%	24	100.0%
전체	27	15.8%	29	17.0%	10	5.8%	105	61.4%	171	100.0%

주로 성장하였던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60%가 농어촌이며, 다음으로 중소도시가 23%, 대도시가 15.3%이다. 그런데 대졸자만이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출신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생산직에서 농어촌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 아버지 직업

아버지 직업														전체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농업		무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2	50.0%	2	50.0%					4	100.0%		
고졸(일반계)				2	7.7%	2	7.7%	22	84.6%			26	100.0%		
2	2.5%	5	6.2%	10	12.3%	5	6.2%	58	71.6%	1	1.2%	81	100.0%		
전문대졸				3	10.7%	6	21.4%	3	10.7%	16	57.1%			28	100.0%
대졸				1	7.1%	4	28.6%	8		57.1%	1	7.1%	14	100.0%	
2	1.3%	11	7.2%	24	15.7%	10	6.5%	104	68.0%	2	1.3%	153	100.0%		
직업															
전문직				3	15.0%	6	30.0%	1	5.0%	10	50.0%			20	100.0%
사무직				7	9.1%	9	11.7%	4	5.2%	56	72.7%	1	1.3%	77	100.0%
판매서비스직				1	3.4%	3	10.3%	3	10.3%	21	72.4%	1	3.4%	29	100.0%
1	5.9%			4	23.5%	1	5.9%	11	64.7%			17	100.0%		
1	.7%	11	7.7%	22	15.4%	9	6.3%	98	68.5%	2	1.4%	143	100.0%		

아버지 직업을 살펴보면 농업이 68%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편,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이 15.7%, 사무직이 7.2%, 생산직이 6.5%, 전문직이 1.3%이다.

아버지 직업으로 농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층은 고졸자 중에서, 그리고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이다.

라. 학력 * 직업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계
중졸이하	0(빈도)	0	0	3	3
	0(행%)	0	0	100.0	100.0
	0(열%)	0	0	12	1.8
고졸(일반계)	6	13	8	5	32
	18.8	40.6	25.0	15.6	100.0
	26.1	14.6	23.5	20.0	18.7
고졸(실업계)	8	46	20	15	89
	9.0	51.7	22.5	16.9	100.0
	34.8	51.7	58.8	60.0	52.0
전문대졸	8	17	5	2	32
	25.0	53.1	15.6	6.3	100.0
	34.8	19.1	14.7	8.0	18.7
대 졸	1	13	1	0	15
	6.7	86.7	6.7	0	100.0
	4.3	14.6	2.9	0	8.8
계	23	89	34	25	171
	13.5	52.0	19.9	14.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먼저 학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사무직 종사비율이 높은 가운데, 특히 대졸자의 사무직 종사비율이 높은 한편, 고졸자의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전문대졸자의 전문직 종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고졸 실업계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판매서비스직에는 고졸 일반계와 실업계가, 생산직에는 고졸 실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 고용조건

가.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4	100.0%									4	100.0%
고졸(일반계)	22	73.3%	3	10.0%	2	6.7%	2	6.7%	1	3.3%	30	100.0%
고졸(실업계)	77	83.7%	4	4.3%	7	7.6%	1	1.1%	3	3.3%	92	100.0%
전문대졸	29	90.6%	1	3.1%					2	6.3%	32	100.0%
대졸	14	93.3%	1	6.7%							15	100.0%
전체	146	84.4%	9	5.2%	9	5.2%	3	1.7%	6	3.5%	173	100.0%
직업												
전문직	20	87.0%	2	8.7%					1	4.3%	23	100.0%
사무직	83	92.2%	3	3.3%	3	3.3%			1	1.1%	90	100.0%
판매서비스직	21	70.0%	2	6.7%	2	6.7%	2	6.7%	3	10.0%	30	100.0%
생산직	17	70.8%	2	8.3%	3	12.5%	1	4.2%	1	4.2%	24	100.0%
전체	141	84.4%	9	5.4%	8	4.8%	3	1.8%	6	3.6%	167	100.0%

전체 응답자 중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8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시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각각 5.2%씩이며, 고용주가 3.5%, 자영업자가 1.7%이다.

중졸이하를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자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다른 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다른 직업종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사업장규모

		사업장의 종업원수										전체						
		5인미만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3	75.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13	40.6%	3	9.4%	5	15.6%	6	18.8%	1	3.1%	32	100.0%						
고졸(실업계)	21	23.1%	15	16.5%	10	11.0%	10	11.0%	12	13.2%	8	8.8%	5	5.5%	10	11.0%	91	100.0%
전문대졸	9	27.3%	4	12.1%	8	24.2%	5	15.2%	2	6.1%	2	6.1%	2	6.1%	1	3.0%	33	100.0%
대졸	1	6.7%			8	53.3%	3	20.0%			1	6.7%	2	13.3%			15	100.0%
전체	44	25.1%	22	12.6%	31	17.7%	27	15.4%	16	9.1%	12	6.9%	9	5.1%	14	8.0%	175	100.0%
직업																		
전문직		11	47.8%	5	21.7%	2	8.7%	3	13.0%	2	8.7%						23	100.0%
사무직	23	26.1%	12	13.6%	20	22.7%	10	11.4%	6	6.8%	7	8.0%	4	4.5%	6	6.8%	88	100.0%
판매서비스직	8	24.2%	4	12.1%	4	12.1%	6	18.2%	4	12.1%	4	12.1%			3	9.1%	33	100.0%
생산직	1	4.2%	2	8.3%	2	8.3%	6	25.0%	4	16.7%	1	4.2%	4	16.7%	4	16.7%	24	100.0%
전체	43	26.6%	23	13.7%	28	16.7%	25	14.9%	16	9.5%	12	7.1%	8	4.8%	13	7.7%	168	100.0%

회사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25.1%로 가장 많고, 10-19인 사업장이 17.7%, 20-49인 사업장이 15.4%, 5-9인 사업장이 12.6%의 순이다.

중졸이하를 제외하고는 학력이 낮을수록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특히 고졸자의 경우에는 일반계가 전체의 50%, 실업계가 전체의 39.6%로서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직의 69.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며, 사무직의 62.4%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판매서비스직의 66.6%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함에 따라 전문직보다 사무직에서, 사무직보다 판매서비스직에서 큰 규모의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생산직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큰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월평균 보수

월평균 보수														전체							
30만원이하		31-40만원		41-50만원		51-60만원		61-70만원		71-80만원		81-90만원		91-100만원		101만원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25.0%			3	75.0%									4	100.0%		
고졸(일반제)			1	3.1%	2	6.3%	8	25.0%	12	37.5%	4	12.5%	3	9.4%	1	3.1%	1	3.1%	32	100.0%	
1	1.1%	3	3.2%	7	7.4%	14	14.7%	32	33.7%	18	18.9%	10	10.5%	6	6.3%	4	4.2%	95	100.0%		
전문대졸		2	6.5%			2	6.5%	3	9.7%	7	22.6%	4	12.9%	3	9.7%	3	9.7%	31	100.0%		
대졸				1	6.7%					5	33.3%	4	25.7%	1	6.7%	3	20.0%	1	6.7%	15	100.0%
전체		3	1.7%	5	2.8%	12	6.8%	25	14.1%	50	33.3%	33	18.6%	18	10.2%	13	7.3%	9	5.1%	177	100.0%
직업																					
전문직		1	4.5%			2	9.1%	2	9.1%	4	18.2%	3	13.6%	6	27.3%	2	9.1%	2	9.1%	22	100.0%
사무직		1	1.1%	1	1.1%	4	4.5%	10	11.2%	34	38.2%	19	21.3%	7	7.9%	7	7.9%	6	6.7%	89	100.0%
판매서비스직		1	2.9%	2	5.9%	3	8.8%	8	23.5%	10	29.4%	5	14.7%	1	2.9%	3	8.8%	1	2.9%	34	100.0%
생산직						3	12.0%	5	20.0%	9	36.0%	5	20.0%	2	8.0%	1	4.0%			25	100.0%
전체		3	1.8%	3	1.8%	12	7.1%	25	14.7%	57	33.5%	32	18.8%	16	9.4%	13	7.6%	9	5.3%	170	100.0%

월평균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61-70만원이 33.3%로 가장 많고, 71-80만원이 18.6%, 51-60만원이 14.1%, 81-90만원이 10.2%로서 61-90만원이 약 75%를 차지한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보수가 많으며, 고졸 일반제보다 고졸 실업제의 보수가 약간 높다.

8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비율이 전문직이 45.5%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무직이 22.5%, 판매서비스직이 14.6%, 생산직이 12%의 순이다.

라. 이직횟수

	직장을 옮긴 횟수												전체				
	1회		2회		3회		4회		5회		7회이상		없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2	50.0%										2	50.0%	4	100.0%
고졸(일반계)	8	25.0%	7	21.9%	10	31.3%	2	6.3%	1	3.1%				4	12.5%	32	100.0%
고졸(실업계)	17	17.9%	27	28.4%	23	24.2%	6	6.3%			1	1.1%		21	22.1%	95	100.0%
전문대졸	10	31.3%	8	25.0%	7	21.9%	1	3.1%						6	18.8%	32	100.0%
대졸	3	20.0%	4	26.7%	1	6.7%	2	13.3%						5	33.3%	15	100.0%
전체	38	21.3%	48	27.0%	41	23.0%	11	6.2%	1	.6%	1	.6%		38	21.3%	178	100.0%
직업																	
전문직	3	13.0%	5	21.7%	9	39.1%								6	26.1%	23	100.0%
사무직	24	27.0%	25	28.1%	14	15.7%	6	6.7%			1	1.1%		19	21.3%	89	100.0%
판매서비스직	3	8.8%	10	29.4%	10	29.4%	4	11.8%	1	2.9%				6	17.6%	34	100.0%
생산직	7	23.2%	5	20.8%	7	29.2%	1	4.2%						4	16.7%	24	100.0%
전체	37	21.8%	45	26.5%	40	23.5%	11	6.5%	1	.6%	1	.6%		35	20.0%	170	100.0%

직장을 옮긴 횟수를 살펴보면, 2회가 27%로 가장 많고, 3회가 23%, 1회가 21.3%로서 1~3회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직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21.3%이다.

3회이상 직장을 옮긴 사람의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일반계가 40.7%로 가장 높고, 고졸 실업계가 31.6%, 전문대졸이 25%, 대졸이 20%로서 학력이 낮을수록 이직률이 높으며, 고졸 실업계보다 고졸 일반계의 이직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회이상 직장을 옮긴 사람의 비율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판매서비스직이 43.5%로 가장 높고, 전문직이 39.1%, 생산직이 33.4%, 사무직이 23.2%로서 판매서비스직의 이직률이 가장 높고, 사무직의 이직률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마. 현직장 근무경력

	현 직장 근무경력										전체	
	1년 이하		1년 - 2년이하		2년 - 3년이하		3년 - 4년이하		4년 초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25.0%	1	25.0%	1	25.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14	42.4%	11	33.3%	5	15.2%	2	6.1%	1	3.0%	33	100.0%
고졸(실업계)	34	34.7%	34	34.7%	13	13.3%	6	6.1%	11	11.2%	98	100.0%
전문대졸	23	69.7%	8	24.2%	2	6.1%					33	100.0%
대졸	10	66.7%	3	20.0%	1	6.7%			1	6.7%	15	100.0%
전체	82	44.8%	57	31.1%	22	12.0%	9	4.9%	13	7.1%	183	100.0%
직업												
전문직	11	47.8%	7	30.4%	4	17.4%	1	4.3%			23	100.0%
사무직	41	45.6%	26	28.9%	13	14.4%	5	5.6%	5	5.6%	90	100.0%
판매서비스직	19	55.9%	12	35.3%					3	8.8%	34	100.0%
생산직	7	28.0%	7	28.0%	4	16.0%	3	12.0%	4	16.0%	25	100.0%
전체	78	45.3%	52	30.2%	21	12.2%	9	5.2%	12	7.0%	172	100.0%

현재의 직장에 근무한 경력을 살펴보면 1년이하가 약 45%이며, 1-2년이 31.1%, 2-3년이 12%이다. 따라서 3년이하 경력자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대졸자보다는 노동시장에 먼저 진입한 고졸자의 경력이 많으며, 특히 고졸 실업계의 경력이 많다.

생산직이 다른 직업보다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의 비율이 높은 반면, 1년이하 경력자의 비율은 판매서비스직에서 가장 높다.

바. 산업재해 횟수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부상당해 본 경험의 횟수								전체			
	1-2회		3-4회		5-6회		9회이상		전혀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25.0%							3	75.0%	4	100.0%
고졸(일반계)	2	6.5%			1	3.2%			28	90.3%	31	100.0%
고졸(실업계)	8	8.4%	2	2.1%	1	1.1%	1	1.1%	83	87.4%	95	100.0%
전문대졸	2	6.3%							30	93.8%	32	100.0%
대졸	1	6.7%	1	6.7%					13	86.7%	15	100.0%
전체	14	7.9%	3	1.7%	2	1.1%	1	.6%	157	88.7%	177	100.0%
직업												
전문직	3	13.0%					1	4.3%	19	82.6%	23	100.0%
사무직	4	4.6%	1	1.1%					82	94.3%	87	100.0%
판매서비스직	2	6.1%	2	6.1%	1	3.0%			28	84.8%	33	100.0%
생산직	4	16.0%							21	84.0%	25	100.0%
전체	13	7.7%	3	1.8%	1	.6%	1	.6%	150	89.3%	168	100.0%

현재의 직장에서의 일하는 도중에 부상당해 보았던 경험으로는 88.7%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2회가 7.9%, 3-4회가 1.7%, 5-6회가 1.1%, 9회이상인 0.6%이다.

1회이상 경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이며, 직업별로는 전문직이다. 본 조사에서 전문직의 상당수가 간호보조업무이므로 의료가기를 다루던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무직에서는 다른 직업보다 재해율이 매우 낮다.

3. IMF이후 고용구조의 변화

가. 감원 경험

	IMF 이후 현재의 직장에서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감원경험				전체	
	그렇다		아니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3	75.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19	59.4%	13	40.6%	32	100.0%
고졸(실업계)	52	54.2%	44	45.8%	96	100.0%
전문대졸	16	50.0%	16	50.0%	32	100.0%
대졸	10	66.7%	5	33.3%	15	100.0%
전체	100	55.9%	79	44.1%	179	100.0%
직업						
전문직	6	26.1%	17	73.9%	23	100.0%
사무직	51	57.3%	38	42.7%	89	100.0%
판매서비스직	22	64.7%	12	35.3%	34	100.0%
생산직	14	58.3%	10	41.7%	24	100.0%
전체	93	54.7%	77	45.3%	170	100.0%

IMF 이후 현재의 직장에서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원을 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5.9%이다.

중졸이하와 대졸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감원한 기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대졸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낮다.

판매서비스직 사업장에서 감원한 기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에 서는 낮다.

나. 월급 연체

	현재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전체	
	밀려있지 않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하위												
중종이하	3	100.0%									3	100.0%
고졸(일반계)	25	92.6%			1	3.7%	1	3.7%			27	100.0%
고졸(실업계)	80	92.0%	3	3.4%	2	2.3%	1	1.1%	1	1.1%	87	100.0%
전문대졸	24	77.4%	6	19.4%	1	3.2%					31	100.0%
대졸	10	66.7%	2	13.3%	1	6.7%	2	13.3%			15	100.0%
전체	142	87.1%	11	6.7%	5	3.1%	4	2.5%	1	.6%	163	100.0%
직업												
전문직	22	100.0%									22	100.0%
사무직	64	79.0%	8	9.9%	5	6.2%	3	3.7%	1	1.2%	81	100.0%
판매서비스직	26	86.7%	3	10.0%			1	3.3%			30	100.0%
생산직	22	100.0%									22	100.0%
전체	134	86.5%	11	7.1%	5	3.2%	4	2.6%	1	.6%	155	100.0%

현재 임금에 체불되어있다는 응답이 약 13%로서 1개월 체불이 가장 많다.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임금체불비율이 높은 가운데 대졸자에게서 장기 임금체불비율이 더 높다.

전문직과 생산직에서는 임금체불이 전혀 없는 반면, 사무직에서는 임금체불비율이 가장 높고, 체불기간도 길다.

다. 월금감소액

IMF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월급이 어느정도 줄었습니까?											전체	
5만원이내		6-10만원		11-15만원		16-20만원		21만원이상		변화없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증줄이하											3	100.0%
고졸(일반계)											17	65.4%
고졸(실업계)											26	100.0%
전문대졸											40	47.6%
대졸											84	100.0%
전체											30	100.0%
전체											4	26.7%
전체											15	100.0%
전체											81	51.3%
전체											158	100.0%
직업												
전문직											12	57.1%
사무직											21	100.0%
판매서비스직											36	44.4%
생산직											81	100.0%
전체											15	50.0%
전체											30	100.0%
전체											14	70.0%
전체											20	100.0%
전체											77	50.7%
전체											152	100.0%

IMF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월급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8.8%인 가운데, 6-10만원 감소가 17.7%, 5만원이내 감소가 14.6%, 11-15만원 감소가 8.2%이다.

대졸자에게서 월급이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감소액의 규모도 큰 반면, 중졸이하와 고졸 일반계는 월급이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고, 감소액의 규모도 적다.

생산직에서 월급이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고, 감소액의 규모도 적은 반면, 사무직에서는 월급이 감소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감소액의 규모도 크다.

라. 근무시간

	IMF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1주일동안의 근무시간의 변화량은?										전체	
	5시간미만 감소		5 - 10시간미만 감소		10시간이상 감소		변화없음		증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33.3%	2	66.7%	3	100.0%
고졸(일반계)	1	3.8%			1	3.8%	19	73.1%	5	19.2%	26	100.0%
고졸(실업계)	7	8.2%	3	3.5%	2	2.4%	61	71.8%	12	14.1%	85	100.0%
전문대졸	3	9.7%	2	6.5%			19	61.3%	7	22.6%	31	100.0%
대졸			2	13.3%			8	53.3%	5	33.3%	15	100.0%
전체	11	6.9%	7	4.4%	3	1.9%	108	67.5%	31	19.4%	160	100.0%
직업												
전문직	1	4.5%	1	4.5%			17	77.3%	3	13.6%	22	100.0%
사무직	5	6.2%	2	2.5%	2	2.5%	57	70.4%	15	18.5%	81	100.0%
판매서비스직	2	6.7%	2	6.7%			19	63.3%	7	23.3%	30	100.0%
생산직	2	10.0%	1	5.0%	1	5.0%	11	55.0%	5	25.0%	20	100.0%
전체	10	6.5%	6	3.9%	3	2.0%	104	68.0%	30	19.6%	153	100.0%

IMF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1주일동안의 근무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19.4%,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7.5%, 감소했다는 응답은 13.2%이다.

중졸이하에게서만 근무시간이 증가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 학력층에서는 대체로 근무시간이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높다.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근무시간이 증가한 비율이 다른 직업의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직과 사무직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마. 해고불안정도

	현재의 직장에서의 느끼는 해고의 불안정도								전체	
	매우 많이 느낌		약간 느끼는 편임		별로 느끼지 않음		전혀 느끼지 않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33.3%			2	66.7%	3	100.0%
고졸(일반계)			9	34.6%	9	34.6%	8	30.8%	26	100.0%
고졸(실업계)	5	5.9%	25	29.4%	28	32.9%	27	31.8%	85	100.0%
전문대졸	1	3.2%	9	29.0%	12	38.7%	9	29.0%	31	100.0%
대졸	1	6.7%	5	33.3%	5	33.3%	4	26.7%	15	100.0%
전체	7	4.4%	49	30.6%	54	33.8%	50	31.3%	160	100.0%
직업										
전문직	1	4.5%	5	22.7%	6	27.3%	10	45.5%	22	100.0%
사무직	2	2.5%	26	32.5%	30	37.5%	22	27.5%	80	100.0%
판매서비스직	2	6.7%	6	20.0%	11	36.7%	11	36.7%	30	100.0%
생산직	2	9.5%	9	42.9%	5	23.8%	5	23.8%	21	100.0%
전체	7	4.6%	46	30.1%	52	34.0%	48	31.4%	153	100.0%

현재의 직장에서의 해고의 불안정도를 매우 많이 느낀다는 응답이 4.4%, 약간 느끼는 편이라는 응답이 30.6%,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33.8%,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나 전체의 35%가 약간이라도 해고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의 해고불안감의 정도가 다른 학력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해고불안감의 정도가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생산직에서 가장 높다.

바. 직업만족도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함		약간 만족하는 편임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임		매우 불만족스러운 편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33.3%	2	66.7%					3	100.0%
고졸(일반계)	3	11.5%	14	53.8%	7	26.9%	2	7.7%	26	100.0%
고졸(실업계)	22	25.6%	40	46.5%	21	24.4%	3	3.5%	86	100.0%
전문대졸	3	9.7%	20	64.5%	6	19.4%	2	6.5%	31	100.0%
대졸	1	6.7%	7	46.7%	6	40.0%	1	6.7%	15	100.0%
전체	30	18.6%	83	51.6%	40	24.8%	8	5.0%	161	100.0%
직업										
전문직	7	31.8%	12	54.5%	3	13.6%			22	100.0%
사무직	12	14.8%	43	53.1%	21	25.9%	5	6.2%	81	100.0%
판매서비스직	8	26.7%	15	50.0%	5	16.7%	2	6.7%	30	100.0%
생산직	2	9.5%	9	42.9%	10	47.6%			21	100.0%
전체	29	18.8%	79	51.3%	39	25.3%	7	4.5%	154	100.0%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가 18.6%,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가 51.6%,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가 24.8%,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5.0%로서 전체적으로 약간이라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0.2%이다.

대졸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고졸자와 중졸이하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고졸 일반계보다 고졸 실업계의 만족도가 높다. 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생산직의 만족도가 낮다.

4. 소비와 저축

가. 가장 지출 많은 것 3가지

- 학력별

빈 도

백분율	식비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교육비	의료비	유흥비	가족부양	저축	기타	합계
중졸이하	4	4	0	0	0	1	0	0	1	2	0	4
	100.0	100.0	.0	.0	.0	25.0	.0	.0	25.0	50.0	.0	2.2
고려(일반계)	20	11	5	18	7	3	1	6	2	20	0	33
	60.6	33.3	15.2	54.5	21.2	9.1	3.0	18.2	6.1	60.6	.0	18.4
고졸(실업계)	63	41	15	40	12	12	3	11	14	55	1	95
	66.3	43.2	15.8	42.1	12.6	12.6	3.2	11.6	14.7	57.9	1.1	53.1
전문대졸	16	10	10	12	8	6	1	6	3	20	0	32
	50.0	31.3	31.3	37.5	25.0	18.8	3.1	18.8	9.4	62.5	.0	17.9
대졸	7	3	1	6	5	3	1	0	5	10	0	15
	46.7	20.0	6.7	40.0	33.3	20.0	6.7	.0	33.3	66.7	.0	8.4
합계	110	69	31	76	32	25	6	23	25	107	1	179
	61.5	38.5	17.3	42.5	17.9	14.0	3.4	12.8	14.0	59.8	.6	100.0

- 직업별

빈도

백분율	식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교육비	의료비	유흥비	가족부양	저축	합계
전문직	13	6	5	11	3	5	0	5	1	13	23
	56.5	26.1	21.7	47.8	13.0	21.7	.0	21.7	4.3	56.5	13.5
사무직	56	33	17	33	16	15	2	9	14	56	89
	62.9	37.1	19.1	37.1	18.0	16.9	2.2	10.1	15.7	62.9	52.4
판매서비스직	21	17	2	20	8	3	3	2	5	16	33
	63.6	51.5	6.1	60.6	24.2	9.1	9.1	6.1	15.2	48.5	19.4
생산직	16	9	4	8	5	1	0	6	4	17	25
	64.0	36.0	16.0	32.0	20.0	4.0	.0	24.0	16.0	68.0	14.7
합계	106	65	28	72	32	24	5	22	24	102	170
	62.4	38.2	16.5	42.4	18.8	14.1	2.9	12.9	14.1	60.0	100.0

가장 지출이 많은 항목(복수응답 3가지)으로는 식비가 61.5%, 저축이 59.8%, 교통비가 42.5%, 의류비가 38.5%, 문화비가 17.9%, 주거비가 17.3%의 순이다.

중졸이하와 고졸자의 경우에는 식비, 의류비의 비중이 다른 학력층보다 상대적으로 큰 반면, 전문대졸자와 대졸자는 문화비와 교육비의 비중이 비교적 크다. 또한 대졸자의 가족부양 지출비율이 다른 학력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문직은 식비와 의류비의 비중이 다른 직업보다 비교적 작은 반면, 교육비와 유흥비의 비중이 크고, 사무직은 교육비와 저축의 비중이 다른 직업보다 크다. 그리고 판매서비스직은 의류비와 교통·문화비의 비중이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생산직은 유흥비와 저축의 비중이 다른 직업보다 크다.

나. 적금, 보험 해약경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한 경험				전체	
	있다		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3	75.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14	43.8%	18	56.3%	32	100.0%
고졸(실업계)	46	46.9%	52	53.1%	98	100.0%
전문대졸	12	37.5%	20	62.5%	32	100.0%
대졸	8	53.3%	7	46.7%	15	100.0%
전체	83	45.9%	98	54.1%	181	100.0%
직업						
전문직	8	34.8%	15	65.2%	23	100.0%
사무직	41	46.1%	48	53.9%	89	100.0%
판매서비스직	15	44.1%	19	55.9%	34	100.0%
생산직	13	52.0%	12	48.0%	25	100.0%
전체	77	45.0%	94	55.0%	171	100.0%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5.9%이다.

중졸이하와 대졸자의 해약률이 높은 반면, 전문대졸자는 낮다.

생산직에서의 해약률이 높은 반면, 전문직에서는 낮다.

5. 구직경로

가. 최종학교졸업 후 구직경로

	최종학교 졸업 후 첫직장을 얻는데 이용한 경로?														전체	
	공공기관의 직업소개소 이용		사업 직업소개소 이용		일간지·지역정보 신문에서 찾음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		학교에서 소개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종료이하																
고졸(일반계)	1	3.0%	2	6.1%	8	24.2%	1	25.0%	3	75.0%	9	27.3%	3	9.1%	4	100.0%
고졸(실업계)					5	5.2%	3	9.1%	7	21.2%	45	46.9%	5	5.2%	33	100.0%
전문대졸	3	9.4%	1	3.1%	2	6.3%	21	21.9%	20	20.8%	13	40.6%	5	5.2%	96	100.0%
대졸	1	6.7%					9	28.1%	3	9.4%	13	40.6%	1	3.1%	32	100.0%
전체	5	2.8%	3	1.7%	15	8.3%	6	40.0%	3	20.0%	2	13.3%	3	20.0%	15	100.0%
					40	22.2%	36	20.0%	69	38.3%	12	6.7%	180	100.0%		
직업 전문직			1	4.5%	3	13.6%	5	22.7%	2	9.1%	9	40.9%	2	9.1%	22	100.0%
사무직	6	6.7%			4	4.5%	16	18.0%	19	21.3%	39	43.8%	5	5.6%	89	100.0%
판매서비스직					6	17.6%	8	23.5%	6	17.6%	11	32.4%	3	8.8%	34	100.0%
생산직			2	8.3%	2	8.3%	8	33.3%	6	25.0%	5	20.8%	1	4.2%	24	100.0%
전체	6	3.6%	3	1.8%	15	8.9%	37	21.9%	33	19.5%	64	37.9%	11	6.5%	169	100.0%

최종학교 졸업 후 첫직장을 얻는데 이용한 구직경로로는 학교에서 소개한 것이 38.3%로 가장 많고, 주위선배나 동료가 소개한 것이 22.2%,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한 것이 20%, 일간지,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은 것이 8.3%이다.

고졸 실업계와 전문대졸자는 학교의 소개를 통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졸자는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고졸 일반계는 학교의 소개를 통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일간지나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는 경우의 비율이 다른 학력층보다 비교적 높다.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서 학교 소개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생산직에서는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다.

나. 최종학교 졸업후 구직기간

	최종학교 졸업후 첫직장을 얻는데 걸린 기간										전체			
	졸업후 곧바로		1-2개월		3-4개월		5-6개월		7-12개월		1년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3	75.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17	53.1%	8	25.0%	4	12.5%	2	6.3%	1	3.1%			32	100.0%
고졸(실업계)	71	74.0%	10	10.4%	6	6.3%	5	5.2%	2	2.1%	2	2.1%	96	100.0%
전문대졸	14	43.8%	7	21.9%	6	18.8%	3	9.4%			2	6.3%	32	100.0%
대졸	7	46.7%	4	26.7%	3	20.0%					1	6.7%	15	100.0%
전체	112	62.6%	29	16.2%	19	10.6%	10	5.6%	3	1.7%	6	3.4%	179	100.0%
직업														
전문직	14	60.9%	6	26.1%			2	8.7%	1	4.3%			23	100.0%
사무직	59	67.8%	9	10.3%	12	13.8%	3	3.4%	2	2.3%	2	2.3%	87	100.0%
판매서비스직	18	52.9%	7	20.6%	4	11.8%	2	5.9%			3	8.8%	34	100.0%
생산직	14	56.0%	6	24.0%	1	4.0%	3	12.0%			1	4.0%	25	100.0%
전체	105	62.1%	28	16.6%	17	10.1%	10	5.9%	3	1.8%	6	3.6%	169	100.0%

최종학교 졸업후 구직기간으로는 ‘졸업후 곧바로’가 62.6%, ‘1-2개월’이 16.2%, ‘3-4개월’이 10.6%, ‘5-6개월’이 5.6%이다.

중졸이하와 고졸 실업계가 ‘졸업후 곧바로’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구직기간은 상대적으로 더 길다.

사무직과 전문직에서 ‘졸업후 곧바로’의 비율이 높은 반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의 구직기간은 상대적으로 더 길다.

다. 주로 이용하는 구직경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합니까?											전체
공공기관의 직업소개소 이용		사전 이용		일간지,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음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100.0%						1 100.0%
고졸(일반계)	2 14.3%	1 7.1%		5 35.7%		5 35.7%		1 7.1%			14 100.0%
고졸(실업계)	4 10.3%			11 28.2%		11 28.2%		7 17.9%			39 100.0%
전문대졸	1 20.0%			3 60.0%		1 20.0%					5 100.0%
대졸	2 100.0%										2 100.0%
전체	9 14.8%	1 1.6%		20 32.8%		17 27.9%		8 13.1%		6 9.8%	61 100.0%
직업											
전문직	1 16.7%			4 66.7%		1 16.7%					6 100.0%
사무직	5 19.2%			9 34.6%		7 26.9%		2 7.7%		3 11.5%	26 100.0%
판매서비스직		1 9.1%		4 36.4%		3 27.3%		1 9.1%		2 18.2%	11 100.0%
생산직	2 16.7%					6 50.0%		4 33.3%			12 100.0%
전체	8 14.5%	1 1.8%		17 30.9%		17 30.9%		7 12.7%		5 9.1%	55 100.0%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중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구직경로는 일간지,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는 경우가 3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한 경우가 27.9%, 공공기관의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14.8%,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한 경우가 13.1%이다.

고졸 일반계와 실업계 모두 일간지나 지역정보신문을 이용하거나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전문대졸자는 일간지나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는 경우의 비율이 높고, 대졸자는 공공기관의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다. 고졸 실업계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를 이용하는 경로가 다른 학력층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에서는 일간지나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생산직에서는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한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한 경우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6. 사회의식

가. 정부 경제정책 만족도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전체	
	매우 만족함		약간 만족하는 편임		약간 불만족스러움		매우 불만족스러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25.0%	2	50.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1	3.2%	5	16.1%	16	51.6%	9	29.0%	31	100.0%
고졸(실업계)	1	1.0%	35	35.7%	43	43.9%	19	19.4%	98	100.0%
전문대졸			7	21.9%	16	50.0%	9	28.1%	32	100.0%
대졸			2	13.3%	9	60.0%	4	26.7%	15	100.0%
전체	2	1.1%	50	27.8%	86	47.8%	42	23.3%	180	100.0%
직업										
전문직			2	8.7%	16	69.6%	5	21.7%	23	100.0%
사무직			28	31.8%	43	48.9%	17	19.3%	88	100.0%
판매서비스직	2	6.1%	10	30.3%	11	33.3%	10	30.3%	33	100.0%
생산직			7	28.0%	11	44.0%	7	28.0%	25	100.0%
전체	2	1.2%	47	27.8%	81	47.9%	39	23.1%	169	100.0%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가 1.1%,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가 27.8%,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가 47.8%,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23.3%로서 긍정적인 입장(28.9%)보다는 부정적인 입장(71.1%)이 훨씬 많다.

대졸자(86.7%)가 부정적 입장의 비율이 가장 높고, 고졸 일반계(80.6%)와 전문대졸(78.1%)이 그 다음이며, 고졸 실업계(63.3%)가 가장 낮다.

전문직(91.3%)이 부정적 입장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직(72%), 사무직(68.2%), 판매서비스직(63.6%)의 순이다.

나. 고통분담 의견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전체	
	찬성		반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3	75.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28	90.3%	3	9.7%	31	100.0%
고졸(실업계)	88	90.7%	9	9.3%	97	100.0%
전문대졸	30	93.8%	2	6.3%	32	100.0%
대졸	13	86.7%	2	13.3%	15	100.0%
진체	162	90.5%	17	9.5%	179	100.0%
직업						
전문직	19	86.4%	3	13.6%	22	100.0%
사무직	82	93.2%	6	6.8%	88	100.0%
판매서비스직	31	93.9%	2	6.1%	33	100.0%
생산직	20	80.0%	5	20.0%	25	100.0%
전체	152	90.5%	16	9.5%	168	100.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90.5%로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고졸자와 전문대졸자의 찬성비율이 높은 반면, 대졸자와 중졸이하에서는 낮다.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의 찬성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과 생산직에서는 낮다.

다. 투표여부

	작년 대통령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가?						전체	
	그렇다		아니다		투표권이 없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25.0%	3	75.0%	4	100.0%
고졸(일반계)	11	34.4%	16	50.0%	5	15.6%	32	100.0%
고졸(실업계)	38	38.8%	43	43.9%	17	17.3%	98	100.0%
전문대졸	19	59.4%	12	37.5%	1	3.1%	32	100.0%
대졸	12	80.0%	3	20.0%			15	100.0%
전체	80	44.2%	75	41.4%	26	14.4%	181	100.0%
직업								
전문직	11	47.8%	10	43.5%	2	8.7%	23	100.0%
사무직	44	50.0%	34	38.6%	10	11.4%	88	100.0%
판매서비스직	14	41.2%	12	35.3%	8	23.5%	34	100.0%
생산직	7	28.0%	12	48.0%	6	24.0%	25	100.0%
전체	76	44.7%	68	40.0%	26	15.3%	170	100.0%

1997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제15대 대통령선거에 투표했다는 응답이 44.2%이다. 투표권이 없던 응답자를 제외한 투표율은 51.6%로서 당시 전체 투표율 80.6%에는 매우 못미친다.

대졸자의 투표참여율이 매우 높은 반면, 고졸이하의 경우에는 낮다.

사무직과 전문직의 투표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생산직은 매우 낮다.

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체																		
돈, 경제력			연줄, 백		학력		능력		정직, 성실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1		25.0%				2		50.0%		1		25.0%		4		100.0%											
고졸(일반계)			12		37.5%				13		40.6%		7		21.9%		32		100.0%											
고졸(실업계)			25		26.6%		3		3.2%		1		1.1%		36		38.3%		28		29.8%		1		1.1%		94		100.0%	
전문대졸			15		48.4%				2		6.5%		8		25.8%		5		16.1%		1		3.2%		31		100.0%			
대졸			7		46.7%		1		6.7%				6		40.0%		1		6.7%						15		100.0%			
전체			60		34.1%		4		2.3%		3		1.7%		65		36.9%		42		23.9%		2		1.1%		176		100.0%	
직업																														
전문직			6		27.3%				10		45.5%		6		27.3%				22		100.0%									
사무직			36		40.9%		1		1.1%		1		1.1%		35		39.8%		15		17.0%				88		100.0%			
판매서비스직			9		27.3%		1		3.0%		1		3.0%		9		27.3%		11		33.3%		2		6.1%		33		100.0%	
생산직			6		27.3%		2		9.1%		1		4.5%		5		22.7%		8		36.4%				22		100.0%			
전체			57		34.5%		4		2.4%		3		1.8%		59		35.8%		40		24.2%		2		1.2%		165		100.0%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능력’이 36.9%, ‘돈과 경제력’이 34.1%, ‘정직과 성실’이 23.9%이다.

전문대졸과 대졸자는 ‘돈과 경제력’의 비율이 높은 반면, 고졸이하는 ‘능력’의 비율이 높다.

사무직은 ‘돈과 경제력’의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은 능력의 비율이,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은 정직과 성실의 비율이 높다.

마. 계층귀속의식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다섯계층으로 나눈다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해습니까?									
		중의 상		중의 중		중의 하		하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학력									
중졸이하				2	50.0%	2	50.0%	4	100.0%
고졸(일반계)				11	34.4%	16	50.0%	5	15.6%
고졸(실업계)		1	1.0%	37	37.8%	53	54.1%	7	7.1%
전문대졸		2	6.3%	8	25.0%	17	53.1%	5	15.6%
대졸				4	26.7%	9	60.0%	2	13.3%
전체		3	1.7%	62	34.3%	97	53.6%	19	10.5%
직업									
전문직				11	47.8%	9	39.1%	3	13.0%
사무직		2	2.3%	24	27.3%	50	56.8%	12	13.6%
판매서비스직		1	2.9%	11	32.4%	21	61.8%	1	2.9%
생산직				13	52.0%	11	44.0%	1	4.0%
전체		3	1.8%	59	34.7%	91	53.5%	17	10.0%

생활수준을 ‘상’ / ‘중의 상’ / ‘중의 중’ / ‘중의 하’ / ‘하’ 로 나누었을 때, 응답자의 계층귀속의식은 ‘중의 하’가 5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의 중’이 34.3%, ‘하’가 10.5%, ‘중의 상’이 1.7% 이다.

대졸자의 계층귀속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과 생산직에서 ‘중의 중’의 비율이,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중의 하’의 비율이 가장 높다.

7.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응답자들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학력, 회사규모,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 직업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직업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학력변인은 고졸 일반계와 실업계를 하나로 묶어서 투입하였으며, 회사규모, 월평균 임금, 이직횟수변인은 설문문항에 재부호화(recode)하여 제시된 보기의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서열변인(ordinal variable)의 성격으로 투입하였다. 직업변인은 모조변인(dummy variable)으로 만든 뒤, 생산직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이 회귀식에 투입되었다.

변수명	회귀계수 (b)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t 값	유의도 수준	R-square
학력	- 0.21	- 0.18	- 2.19	0.03	0.11
회사규모	- 0.04	- 0.10	- 1.15	0.25	
월평균 임금	0.07	0.16	1.84	0.07	
이직횟수	- 0.00	- 0.01	- 0.08	0.94	
직업(전문직)	0.53	0.23	2.12	0.04	
직업(사무직)	0.18	0.11	0.94	0.35	
직업(판매서비스)	0.36	0.18	1.73	0.09	
상 수	2.80		8.32	0.00	

중다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95% 수준에서 직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인은 학력과 직업(전문직)이다. 이 중에서도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력이다. 학력은 직업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은 생산직보다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임금과 직업(판매서비스)은 비록 95%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90% 수준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8. 직업이동(job mobility)

청소년의 직업이동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근로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목 근로임대아파트에서 3명, 의류제조업체인 S사에서 2명, 모두 5명을 대상으로 각각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5명의 근로청소년은 모두 고졸 여자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별 분석

1) A양

(1) 가정 배경

성장지역	학력	아버지직업	가족관계
경기도 양평	고졸	농업	부모, 1남4녀중 넷째

(2) 직업이동

① 첫번째 직장(현재)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의류 검사	월 65만원	주당 50시간	92년- 현재	친척 소개

2) B양

(1) 가정 배경

성장지역	학력	아버지직업	가족관계
충남 논산	고졸	농업	부모, 2남2녀중 둘째

(2) 직업이동

① 첫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가구점에서 잔 심부름	월 35만원	주당 50시간	2개월	학교 소개

② 두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주유소 경리	월 40만원	주당 45시간	2개월	친척 소개

③ 세번째 직장(현재)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의류 미싱	월 65만원	주당 50시간	93년- 현재	친척 소개

3) C양

(1) 가정 배경

성장지역	학력	아버지직업	가족관계
강원도 철원	고졸	농업	부모, 1남2녀중 첫째

(2) 직업이동

① 첫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경리	월 60만원	주당 55시간	?	친척 소개

② 두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경리	월 60만원	주당 50시간	7개월	친척 소개

③ 세번째 직장(현재)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회계	월 60만원	주당 50시간	97년- 현재 (8개월)	친척 소개

4) D양

(1) 가정 배경

성장지역	학력	아버지직업	가족관계
전북 정읍	고졸	농업	부모, 4녀중 셋째

(2) 직업이동

① 첫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백화점 계산원	월 90만원	주당 60시간	96.8 - 97.1	?

② 두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경리	월 50만원	주당 72시간	97.3 - 97.6	생활정보지

③ 세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경리	월 60만원	주당 72시간	97.7 - 97.12	부친 소개

④ 네번째 직장(현재)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공판장 계산원	월 85만원	주당 78시간	98.1 - 현재	생활정보지

5) E양

(1) 가정 배경

성장지역	학력	아버지직업	가족관계
전북 임실	고졸 (검정고시)	안계심 (어머니가 농업)	모, 2남3녀중 넷째

(2) 직업이동

① 첫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의류제조(오바)	월 60만원	주당 60시간	?	직장동료소개

② 두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의류제조(오바)	월 65만원	주당 60시간	?	?

③ 세번째 직장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의류제조(미싱)	월 55만원	주당 60시간	?	직장선배소개

④ 네번째 직장(현재)

업무내용	보수	근무시간	근무기간	구직방법
의류제조(오바)	월 75만원	주당 60시간	95.11 - 현재	친구소개

나. 직업이동(job mobility) 분석

1) 직업의 내용

개인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A	의류 검사 (현재)			
B	가구점에서 잔 심부름	주유소 경리	의류 미싱 (현재)	
C	경리	경리	회계 (현재)	
D	백화점 계산원	경리	경리	공판장 계산원 (현재)
E	의류 오바	의류 오바	의류 미싱	의류 오바 (현재)

직업의 내용에 따라 직업경력(job career)을 살펴보면 B양을 제외하
고 네명의 청소년 모두 처음의 직장과 현재의 직장사이에 연관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력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업무내용이 숙련
도의 질적 수준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동일한 기술수
준을 요구하는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임금 (월 평균)

개인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A	65만원 (현재)			
B	35만원	40만원	65만원 (현재)	
C	60만원	60만원	60만원 (현재)	
D	90만원	50만원	60만원	85만원 (현재)
E	60만원	65만원	55만원	75만원 (현재)

직업이동에 따른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B양의 경우에만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C양은 변화가 없고, D양과 E양은 직업이동에 따른 규칙적인 변화는 없다. C양, D양, E양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동이 관련 분야내에서의 직업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동에 따른 임금의 상승이 동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구직방법

개인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A	친척소개 (현재)			
B	학교소개	친척소개	친척소개 (현재)	
C	친척소개	친척소개	친척소개 (현재)	
D	?	생활정보지	부친소개	생활정보지 (현재)
E	직장동료소개	?	직장선배소개	친구소개 (현재)

청소년들의 직업이동에 있어서 사용한 구직방법을 살펴보면, 총 15건의 이동중에서 가족 및 친척소개가 7건, 직장동료·선배와 친구소개가 3건, 생활정보지가 2건, 학교소개가 1건, 불명확(missing)이 2건이다.

대체로 가족, 친척, 직장동료, 친구 등과 같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구직이 모두 10건으로 전체의 약 78%(불명확 제외)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고졸 여자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취직’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이 대부분 구인광고나 학교의 소개와 같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동안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IMF 전후 청소년 노동시장을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낮은 반면 실업률은 매우 높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실업률의 증가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유입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존 취업자의 감소의 영향에도 기인한 것이다.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진입이 실업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실업계졸업자에게서 컸다.

특정 시점의 공식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유형은 학력별로 상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별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학력별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성별	남자	①	③	⑤
	여자	②	④	⑥

청소년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유형은 위와 같이 학력과 성의 조합에 따라 6가지의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으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성별에 따른 이행유형의 범주화에서 남자청소년에게 있어서는 ‘군복무’가, 여자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혼인’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성별 특성은 학력별 특성과 조합이 되어 나타난다.

고졸 남자청소년, 전문대졸 청소년, 대졸 청소년이 군복무를 겪는 시

기는 서로 다르며, 따라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연령과 유형이 각각 다르다. 고졸 남자청소년은 최종학교 졸업후 군복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반해 전문대졸 청소년과 대졸 청소년은 대부분 재학기간중 군복무를 수행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전에 준비의 기간을 갖는다.

여자청소년에게 있어서 ‘혼인’의 경험은 남자청소년과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유형에 있어서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여자청소년 학력별로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6개의 하위집단을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범주화해보면 <남자 고졸 청소년> / <남자 전문대졸 청소년, 남자 대졸 청소년> / <여자 고졸 청소년, 여자 전문대졸 청소년, 여자 대졸 청소년> 과 같은 3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뉜다. 고졸 청소년의 경우에 일반계와 실업계의 구분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청소년노동시장에 차별적으로 위치하는 다양한 청소년하위집단이 존재함에 따라 청소년 고용 및 실업정책도 이들 대상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조건과 생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50%가 IMF 이후 월급이 감소했으며, 46%가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약 35%가 현재의 직장에서 해고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약 70%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현재 주로 이용하는 구직경로가 대부분 일간지나 지역정보신문(33%), 주위 선배나 동료의 소개(28%)인 반면 공공기관의 직업소개는 단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직활동 청소년에 대해 지역별 직업알선 및 정보제공기관(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안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인의 능력과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유형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매

우 취약한 계층은 고졸 청소년이며, 이들은 향후 장기실업화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무엇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청소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안정된 이행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종합적인 청소년인력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제도, 병역제도, 가족제도에 대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장무섭, “청소년실업자를 위한 교육대책”, 1998, 한국교육개발원.
- 장무섭, ‘청년층 실업대책’, “중장기 실업대책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발표자료”,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김철환외, ‘Youth Unemployment In Korea’, “노동경제평론 제15권”, 한국노동경제학회, 1992
- 나탈리 소콜로프, 이효재 옮김,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화여대 출판부, 1990
- 방하남, ‘고학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청장년층 실업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송호근, “노동과 불평등”, 나남, 1990
- 송호근, “열린시장, 닫힌 정치”, 나남, 1994
-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1
- 심윤종외, “산업사회학”, 경문사, 1984
- 어수봉외,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유길상외,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이각범, “현대자본주의와 노동시장”, 한울아카데미, 1989
- 이무근, “IMF시대의 청소년실업문제, 그 진단과 대책”, 한국청소년학회, 1998
- 이주호, “고용정책과 인적자원개발”, 한국개발연구원, 1996
- 이주호, “청년층 고용문제와 교육·노동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3
- 이주호외, “노사관계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1997
- 이효수,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1991
- 이효수, “노동시장구조론”, 법문사, 1984
- 정인수, “고용구조변화와 정책과제(OECD경험의 함의와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6

- 정인수, “주요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정인수, “청소년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정인수, ‘청년층 실업현황과 대책’, “실업대책 개선방향”, 노사정위원회, 1998
- 정진화,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 산업연구원, 1996
- 최경수외, “청년층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1997
- Paul Osterman, “Getting started : the youth labor market”, MIT, 1980

ABSTRACT

A research on youth labor market

In this study, the contemporary status of youth labor market during the pre and post IMF situ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process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was analyzed.

The participation rate of youth to the labor marke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total participation, moreover, the unemployment rate of youth was very high. The increment of unemployment rate of youth seemed to be partially caused by the difficulties of finding out the pathways to the labor market for the new high school graduates, as well as the decrease of currently employed youth. The new graduates' failure to enter the labor market affects the increment of unemployment rate, and it was especially high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Upon differentiating the process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by sex, it was revealed that such factors like 'military service' in male youth and 'marriage' in female youth were very important. These characteristic features of sex difference were proved to be combined with those of education.

The periods of serving in the military are different among the male graduates of high schools, junior colleges, and 4-year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refore, the ages and types of entering the labor market are different, too. Among male youth, high school graduates go to serve in the military right after their graduation, and they enter the labor

market after the service. On the contrary, the majority of junior colleg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serve in the military before they graduate from each school and they have certain periods of job preparation.

The 'marriage' experience of female youth affects a great deal to the types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which is a very distinctive and different factor from the male youth,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by education factors between male and female youth.

Grouping youth by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 type, the following three specific subcategories are defined: (1) male high school graduates, (2) male junior colleg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3) female high school, junior college,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For the high school graduates, factors like the school types which they graduated from, e.g. general school or vocational school, also seemed to be important, however, these factors were not taken into account in this study.

As a consequence, hence there are diverse subcategories of youth apparently existing in the youth labor market, the youth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olicies need to be differentiated and elaborated according to the types of education background of youth.

To solve the urgent problems of youth unemployment in the present situation,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a stable system on the issue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need to be established, and a comprehensive human development policies for youth to solve and prevent these issues should be developed now. For the ongoing success of youth employment policies, some changes of the current systems in education, military service, and family should be also occurred.

부 록

- 근로청소년 고용실태 및
복지의식조사설문지

※ 설문지

근로청소년 고용실태 및 복지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는 근로청소년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연구를 위해 근로청소년의 고용실태와 복지의식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으며, 조사자료는 정책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에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 8월

연락처 :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 (우 137-715)

박 창 남(2188-8825)

※ 다음에서 귀하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를 하시고, 빈 칸에
는 직접 적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이하 ② 고졸(인문계) ③ 고졸(실업계)
④ 전문대졸 ⑤ 대졸 ⑥ 대학원졸

4. 귀하의 혼인상태는?

- ① 미혼 ② 기혼(배우자 있음)
③ 이혼 ④ 사별

5. 귀하는 주로 어느 곳에서 성장하셨나요?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도시(시지역)
③ 소도시(군지역) ④ 농어촌지역(읍·면·리 지역)

6. 아버지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7. 어머니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8. 귀하는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셨나요?

- ① 일하였음 → ①번,②번 응답자는 다음페이지로 넘겨
② 일시휴직 → 12번부터 응답해주세요
③ 구직활동
④ 가사
⑤ 육아
⑥ 통학
⑦ 기타 : _____

9. 귀하는 지난주에 직장 또는 일자리를 구해 보셨나요?

- ① 구해보았음 ② 불가피한 사유로 구해보지 못했음
③ 구해보지 않았음

10. 귀하는 지난주에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① 있었음 ② 없었음

11. 지금이라도 알맞는 직장이나 일거리가 있다면 일하시겠습니까?

- ① 하겠음 ② 하지 않겠음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현재의 직장생활에 대하여 응답해주시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가장 최근까지 근무하셨던 직장생활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귀하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예: 구두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마이크제조업, 아동복소매업 등)

_____ 분야

13. 귀하는 위의 분야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재단, 미싱, 조립, 판매 등)

14. 귀하가 하시는 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 ① 상용근로자(정식)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직 근로자
④ 가족종사자 ⑤ 자영업자 ⑥ 고용주

15. 귀하는 지난달 평균 1주일 동안에 몇시간정도 일하십니까?

1주일동안 평균 _____ 시간

16. 귀하가 다니시는 직장의 종업원수는 대략 모두 몇 명정도 되나요?

- ① 5인미만 ② 5-9인 ③ 10-19인 ④ 20-49인
⑤ 50-99인 ⑥ 100-299인 ⑦ 300-499인 ⑧ 500인 이상

17. 귀하는 현재 평균적으로 상여금과 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대략 얼마정도 받으시나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분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 ① 30만원이하 ② 31-40만원 ③ 41-50만원
④ 51-60만원 ⑤ 61-70만원 ⑥ 71-80만원
⑦ 81-90만원 ⑧ 91-100만원 ⑨ 101만원이상
⑩ 무보수

18. 귀하는 직장을 옮긴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⑥ 6번 ⑦ 7번이상 ⑧ 없다

19.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지는 얼마나 되시나요?

_____ 년 _____ 개월

20. 귀하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모두 얼마나 하셨나요?

- ① 1년미만 ② 1년이상-2년미만 ③ 2년이상-3년미만
④ 3년이상-4년미만 ⑤ 4년이상-5년미만 ⑥ 5년이상

21.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부상당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 ① 1-2회 ② 3-4회 ③ 5-6회 ④ 7-8회
⑤ 9회 이상 ⑥ 전혀 없다

22.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서 IMF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을 감원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3. 귀하의 직장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 응답자는 25번
부터 응답해주세요

24.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활동은 어떠한가요?

- ① 활동이 활발하다 ② 활동이 적은 편이다
③ 활동이 거의 없다

25. 귀하의 생활비중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을 순서대로 3가지
만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① 식비 ② 의류비 ③ 주거비(임대료,관리비등)
④ 교통비 ⑤ 문화비 ⑥ 교육비(각종 학원)
⑦ 의료비 ⑧ 유흥비 ⑨ 가족부양(부모나 형제에게 송금)
⑩ 저축(보험) ⑪ 기타 : _____

26. 귀하는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① 있다 ② 없다

27. 귀하는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첫직장을 얻는데 어떤 경로를
통했나요?

- ① 공공기관의 취업소개소를 이용했다
② 사설 취업소개소를 이용했다
③ 일간지,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았다
④ 주위 선배나 동료가 소개했다
⑤ 가족이나 친척이 소개했다
⑥ 학교에서 소개했다
⑦ 기타 : _____

28. 귀하는 최종학교를 졸업한 후 첫직장을 얻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 ① 졸업후 곧바로 ② 1-2개월 ③ 3-4개월
④ 5-6개월 ⑤ 7-12개월 ⑥ 1년이상

29. 귀하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현재 받고 계시거나 혹은, 받으신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②번 응답자는 32번

부터 응답해주세요

30. 만약 현재 받고 계시거나 받으신 적이 있다면 어떤 직업에 관련된 교육인가요?

31. (재)취업 직업훈련이 직장을 얻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혹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2. 귀하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있는 실업보험제도가 청소년실업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③ 별로 도움이 안된다 ④ 전혀 도움이 안된다

33. 귀하는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③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34. 귀하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5. 귀하는 작년 대통령선거때 투표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투표권이 없었다

36.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나요?

- ① 돈, 경제력 ② 연줄, 뺨 ③ 학력
④ 능력 ⑤ 정직, 성실
⑥ 기타 : _____

37.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다섯가지로 나눈다면 귀하
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상층
② 중의 상층
③ 중의 중층
④ 중의 하층
⑤ 하층

※ 다음의 질문에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겨 43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38. 귀하는 현재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인가요?

- ① 밀려있지 않음 ② 1개월 밀려있음 ③ 2개월 밀려있음
④ 3개월 밀려있음 ⑤ 4개월이상 밀려있음

39. 귀하는 IMF로 인한 경제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월급이 어느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5만원이내 ② 6-10만원 ③ 11-15만원 ④ 16-20만원
⑤ 21-25만원 ⑥ 26-30만원 ⑦ 31만원이상 ⑧ 변화없음

40. 귀하는 IMF로 인한 경제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
로 1주일동안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5시간미만 감소 ② 5-9시간 감소 ③ 10-14시간 감소
④ 15-19시간 감소 ⑤ 20-24시간 감소 ⑥ 25시간 이상 감소
⑦ 변화없음 ⑧ 오히려 증가했음

41. 귀하는 현재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하는 편이다
③ 약간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42.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서 해고 불안을 얼마나 느끼시나요?

- ① 매우 많이 느낀다 ② 약간 느끼는 편이다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 다음의 질문에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43. 귀하는 전에 하던 일을 왜 그만 두셨나요?

- ① 보수가 적어서 ② 작업환경이 나빠서 ③ 장래성이 없어서
④ 폐업 ⑤ 감원 ⑥ 자기사업을 하려고
⑦ 기타 : _____

44. 귀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 ① 공공기관의 직업소개소를 이용한다
② 사설 직업소개소를 이용한다
③ 일간지, 지역정보 신문에서 찾는다
④ 주위 선배나 동료에게 물어본다
⑤ 가족이나 친척에게 물어본다
⑥ 기타 : _____

※ 면접지

1. 학교를 다니며 주로 생활했던 지역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2. 가족관계(직업, 현재 사는 곳)

3. 직장생활

1) 현재 직장

- ① 직장명 :
- ② 근무지역 :
- ③ 업무분야 :
- ④ 하는 일 :
- ⑤ 보수 : 월 만원
- ⑥ 근무시간(1주당) : 시간
- ⑦ 어려운 정도 :
- ⑧ 근무기간 :
- ⑨ 직장을 구한 방법 :

2) 첫 번째 직장

- ① 직장명 :
- ② 근무지역 :
- ③ 업무분야 :
- ④ 하는 일 :
- ⑤ 보수 : 월 만원
- ⑥ 근무시간(1주당) : 시간
- ⑦ 어려운 정도 :
- ⑧ 근무기간 :
- ⑨ 직장을 구한 방법 :

3) 두 번째 직장

- ① 직장명 :
- ② 근무지역 :
- ③ 업무분야 :
- ④ 하는 일 :
- ⑤ 보수 : 월 만원
- ⑥ 근무시간(1주당) : 시간
- ⑦ 어려운 정도 :
- ⑧ 근무기간 :
- ⑨ 직장을 구한 방법 :

4) 세 번째 직장

- ① 직장명 :
- ② 근무지역 :
- ③ 업무분야 :
- ④ 하는 일 :
- ⑤ 보수 : 월 만원
- ⑥ 근무시간(1주당) : 시간
- ⑦ 어려운 정도 :
- ⑧ 근무기간 :
- ⑨ 직장을 구한 방법 :

5) 네 번째 직장

- ① 직장명 :
- ② 근무지역 :
- ③ 업무분야 :
- ④ 하는 일 :
- ⑤ 보수 : 월 만원
- ⑥ 근무시간(1주당) : 시간
- ⑦ 어려운 정도 :
- ⑧ 근무기간 :
- ⑨ 직장을 구한 방법 :

4.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5. 가정생활

1) 월 평균 지출액

- ① 식비 :
- ② 의류비 :
- ③ 주거비 :
- ④ 교통비 :
- ⑤ 문화비 :
- ⑥ 교육비 :
- ⑦ 의료비 :
- ⑧ 유흥비 :
- ⑨ 가족부양 :
- ⑩ 예금 : _____ , 보험 :
- ⑪ 기타 : _____ :

2) 적금이나 보험 해약

- ① 암보험 :
- ② 정기적금 :
- ③ 기타1 _____ :
- ④ 기타2 _____ :

3) IMF이후 줄인 비용은

- ① 식비 :
- ② 의류비 :
- ③ 주거비 :
- ④ 교통비 :
- ⑤ 문화비 :
- ⑥ 교육비 :
- ⑦ 의료비 :
- ⑧ 유흥비 :
- ⑨ 가족부양 :
- ⑩ 예금 : _____ , 보험 :
- ⑪ 기타 : _____ :

6. IMF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7. 고용불안의 정도
 - 응답이유?
8. 직업훈련의 경험에 대해
 - 응답이유?
9. IMF 이후 감원
 - 1) 전체규모 ()명중 ()명정도 감원
 - 2) 감원의 기준
 - 3) 감원의 절차
10. 만약 내가 실직되고 앞으로도 6개월간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11. 작업중 부상당한 상황과 치료
12. 투표참여
 -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13. 실직자
 - 1) 실직이후 생활
 - 2) 구직방법
 - 3) 구직내용(원하는 직업과 보수)
 - 4) 구직이 안된다면
14. 근로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것들

※ 면접지 결과

☐ A 양

○ 학교를 다니며 주로 생활했던 지역

초등학교 - 경기도, 양평군

중학교 - 경기도, 양평군

고등학교 - 경기도, 양평군

○ 가족관계 (직업, 현재 사는 곳)

아버지 - 농사일 하심 - 경기도, 양평군

어머니 - 농사일 하심 - 경기도, 양평군

큰언니 - 농사일 하심 - 강원도, 횡성군

작은언니 - 가사 - 인천

셋째언니 - 자영업 - 인천

남동생 - 실직 - 경기도, 양평군

○ 직장생활

1. 현재직장

- 직장명: ○ ○
- 근무지역: 동대문구 답십리
- 업무분야: 의류업
- 하는 일: 검사
- 보수: 월 65만원
- 근무시간(1주당): 50시간
- 어려운 정도: 약간 힘들
- 근무기간: 1992년 12월 ~ 1998년 8월(현재까지)
- 직장을 구한 방법: 친척 소개

○ 가정생활

1. 월 평균 지출액

- ①식 비: 5만원
- ②의류비: 5만원
- ③주거비: 2만원
- ④교통비: 3만원
- ⑤문화비: 3만원
- ⑥교육비: 0
- ⑦의료비: 2천원
- ⑧유형비: 2만원
- ⑨가족부양: 0
- ⑩예금: 30만원, 보험: 2만6천400원
- ⑪기타:

2. 최근 적금이나 보험 해약 내역

- (1) 암보험: 월 3만 9천원 10년 만기 — 중지
- (2) 정기적금: 연금-월6만원 10년 만기 —

3. IMF이후 줄인 비용

- ①식 비: 5만원
- ②의류비: 3만원
- ③주거비: 0
- ④교통비: 2만원
- ⑤문화비: 2만원
- ⑥교육비: 0
- ⑦의료비: 0
- ⑧유형비: 2만원
- ⑨가족부양: 0
- ⑩예금: 0 보험: 0
- ⑪기타:

- IMF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 IMF이후 감원경험
전체규모 (25)명중 (7)명 정도 감원
- 만약 내가 실직되고 앞으로도 6개월간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학원을 다닐 것임.
- 지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시간이 없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서
- 근로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것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 B 양

- 학교를 다니며 주로 생활했던 지역
초등학교 -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중학교 - 충청남도 논산군 가야곡면
고등학교 - 충청남도 논산군 양촌면
- 가족관계 (직업, 현재 사는 곳)
아버지 - 농사일 하심 - 충청남도 논산군
어머니 - 농사일 하심 - 충청남도 논산군
오빠 - 실직상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여동생 - 판매직 - 대전
남동생 - 학생 - 충청남도 논산시

○ 직장생활

1. 현재 직장

- 직장명: ○ ○
- 근무지역: 동대문구 답십리
- 업무분야: 의류업
- 하는 일: 미싱
- 보수: 월 65만원
- 근무시간(1주당): 50시간
- 어려운 정도: 매일 힘들
- 근무기간: 1993년 5월 - 1998년 8월(현재까지)
- 직장을 구한 방법: 친척소개로

2. 첫 번째 직장

- 직장명: ○ ○ 가구
- 근무지역: 경기도 광주
- 업무분야: 가구
- 하는 일: 잔심부름
- 보수: 월 35만원
- 근무시간(1주당): 50시간
- 어려운 정도: 매일 힘들
- 근무기간: 2개월
- 직장을 구한 방법: 학교소개

3. 두 번째 직장

- 직장명: ○ ○ 주유소
- 근무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 하는 일: 경리
- 보수: 월 40만원
- 근무시간(1주당): 45시간
- 어려운 정도: 없었음
- 근무기간: 2개월

- 직장을 구한 방법: 친척소개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엔 공부하기가 싫어서 취업반에 갔음

○ 가정생활

1. 월 평균 지출액

- ① 식비: 5만원
- ②의류비: 5만원
- ③주거비: 2만원
- ④교통비: 2만원
- ⑤문화비: 0
- ⑥교육비: 0
- ⑦의료비: 5천원
- ⑧유형비: 0
- ⑨가족부양: 0
- ⑩예금: 0, 보험: 25,300원
- ⑪ 기타:

2. 최근 적금이나 보험 해약 내역

(1) 정기적금: 월 50만원. 1년 만기 현재 6개월 입금

3. IMF이후 줄인 비용

- ① 식비: 0
- ②의류비: 0
- ③주거비: 2만원
- ④교통비: 0
- ⑤문화비: 2만원
- ⑥교육비: 0
- ⑦의료비: 0
- ⑧유형비: 2만원

⑨가족부양: 0

⑩예금: 50만원 보험: 0

⑪기타:

○ IMF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 IMF이후 감원경험

전체규모 (25)명중 (7)명 정도 감원

○ 만약 내가 실직되고 앞으로 6개월간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쉬면서 학원에 다니고 있을 것 같다.

○ 지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으므로 못했음.

○ 근로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것들

직업훈련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 C 양

○ 학교를 다니며 주로 생활했던 지역

초등학교 - 강원도 철원군

중학교 - 강원도 철원군

고등학교 - 강원도 철원군

○ 가족관계(직업, 현재 사는 곳)

아버지 - 농업 - 강원도 철원군

어머니 - 가사 - 강원도 철원군

여동생 - 학생 - 강원도 철원군

남동생 - 학생 - 강원도 철원군

○ 직장생활

1. 현재 직장

- 직장명: ○○○ 회계 사무소
- 근무지역: 서울 논현동
- 하는 일: 회계
- 보수: 월 50만원
- 근무시간(1주당): 50시간
- 어려운 정도: 별로 없다
- 근무기간: 8개월
- 직장을 구한 방법: 친척의 권유로

2. 첫 번째 직장

- 직장명: ○○○
- 근무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하는 일: 경리
- 보수: 월 60만원
- 근무시간(1주당): 55시간
- 어려운 정도: 별로 없다
- 근무기간: 모름
- 직장을 구한 방법: 친척의 권유로

3. 두 번째 직장

- 직장명: ○○
- 근무지역: 서울시 당산동
- 하는 일: 경리
- 보수: 월 60만원
- 근무시간(1주당): 50시간
- 어려운 정도: 없음
- 근무기간: 7개월 정도
- 직장을 구한 방법: 친척의 권유로

○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돈 벌려구

○ 가정생활

1. 월 평균 지출액

①식 비: 15만원

②의류비: 20만원

③주거비: 2만원

④교통비: 3만원

⑤문화비: 0

⑥교육비: 0

⑦의료비: 0

⑧유형비: 5만원

⑨가족부양: 0

⑩예금: 10, 보험:

⑪ 기타:

○ IMF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질 않는다.

○ 만약 내가 실직되고 앞으로 6개월간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직장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구해 본다.

○ 근로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것들
근로청소년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D 양

○ 학교를 다니며 주로 생활했던 지역

초등학교 -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중학교 - "

고등학교 - "

○ 가족관계(직업, 현재 사는 곳)

아버지 - 농사일 하심 - 전북 정읍시

어머니 - " - "

큰언니 - 학원강사 - 전남 광주

작은언니 - 교대재학 - 4년 전남 광주

여동생 - 고3재학 - 전북 정읍시

○ 직장생활

1. 현재 직장

- 직장명: ○○ 공판장
- 근무지역: 가락동
- 업무분야: 계산원
- 보수: 월 85만원
- 근무시간(1주당): 78시간
- 어려운 정도: 조금 힘들
- 근무기간: 1998, 1월~ 현재
- 직장을 구한 방법: 정보지

2. 첫 번째 직장

- 직장명: ○○ 백화점
- 근무지역: 성남 야탑
- 업무분야: 계산원
- 보수: 월 90만원
- 근무시간(1주당): 60시간

- 어려운 정도: 조금 힘든
- 근무기간: 1996년 8월 ~ '97. 1월

3. 두 번째 직장

- 직장명: ○○○ 엔지니어링
- 근무지역: 전남 광주
- 업무분야: PC작업
- 하는 일: 경리
- 보수: 월 50만원
- 근무시간(1주당): 72시간
- 어려운 정도: 조금 힘든
- 근무기간: 1997, 3월 ~ 6월
- 직장을 구한 방법: 정보지

4. 세 번째 직장

- 직장명: ○○ 식품
- 근무지역: 성수동
- 업무분야: 경리
- 보수: 월 60만원
- 근무시간(1주당): 72시간
- 어려운 정도: 약간 힘든
- 근무기간: 1997, 7월 ~ 12월
- 직장을 구한 방법: 아빠 소개로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대학의 필요성을 못 느꼈음.

○ 가정생활

1. 월 평균 지출액

- ① 식비: 6만원
- ② 의류비: 10만원
- ③ 주거비: 3만원

- ④교통비: 2만 5천원 정도
- ⑤문화비: 1만 5천원 정도
- ⑥교육비: 0
- ⑦의료비: 0
- ⑧유종비: 2만원
- ⑨가족부양: 0
- ⑩예금: 30만원, 보험:1만 4천원
- ⑪ 기타: B.P: 1만 3천원

- IMF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없다.
- 만약 내가 실직되고 앞으로 6개월간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광주로 내려가 공부를 하겠음.

☐ E 양

- 학교를 다니며 주로 생활했던 지역
초등학교 - 전북 임실군
중학교 - <수도학원> 고입검정
고등학교 - <수도학원> 대입검정
- 가족관계(직업, 현재 사는 곳)
어머니 - 농사 - 전북
오빠 - 직장인 - 서울
큰언니 - 주부 - 울산
작은언니 - 주부 - 망양
동생 - 학생

○ 직장생활

1. 현재 직장

- 직장명: ○○ 산업
- 근무지역: 서울 면목동
- 업무분야: 의류제조업
- 하는 일: 오바
- 보수: 월 75만원
- 근무시간(1주당): 60시간
- 근무기간: 1995. 11. 4 - 현재
- 직장을 구한 방법: 친구소개

2. 첫 번째 직장

- 직장명: ○○사
- 근무지역: 서울 장안동
- 업무분야: 의류제조업
- 하는 일: 오바
- 보수: 월 60만원
- 근무시간(1주당): 60시간
- 직장을 구한 방법: 직장동료

3. 두 번째 직장

- 직장명: ○○
- 근무지역: 서울 면목동
- 업무분야: 의류제조업
- 하는 일: 오바
- 보수: 월 65만원
- 근무시간(1주당): 60시간

4. 세 번째 직장

- 직장명: ○○물산
- 근무지역: 서울 상계동

- 업무분야: 의류제조업
- 하는 일: 미싱
- 보수: 월 55만원
- 근무시간(1주당): 60시간
- 직장을 구한 방법: 직장선배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형제 자매가 많고, 가정이 어려워서

○ 가정생활

1. 월 평균 지출액

- ① 식비: 10만원
- ②의류비: 1만원
- ③주거비: 3만원
- ④교통비: 5천원
- ⑤문화비: 2만원
- ⑥교육비: 0
- ⑦의료비: 4~5만원
- ⑧유흥비: 2만원
- ⑨가족부양: 3만원
- ⑩예금: 423,000, 보험:
- ⑪ 기타:

2.최근 적금이나 보험 해약내역

(1) 대출: 월 423,000. 2년 8개월 담보 대출 받음.

○ IMF 이후 겪고 있는 어려움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없다.

○ 만약 내가 실직되고 앞으로 6개월간 직장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겠음.

- 근로청소년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으면 하는 것들
근로청소년을 위한 문화생활과 함께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었으면